



Spring, 2015. Vol. 15 Contents

04

인사의 말씀

06

주요행사

오케스트라에 젊음을 담다_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STUDIO2021_ Ensemble Adventure at SNU, Sukhi Kang at 80
현대음악의 전령_ 작곡가 강석희 인터뷰
현대음악의 과거와 미래_ 헤르만 다누저 교수 특별강연

16

인터뷰

'더 나옴'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_ 피아니스트 정진우
오페라 가수 'Attila Jun', 교육자 '전승현'으로 관악에 돌아오다_ 성악과 전승현 신임교수
사랑과 감동의 가르침_ 성악과 이용훈 신임교수

22

Masterpieces by SNU Music

미래의 주역들, 그 도약의 무대_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정이 깃든 무대_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바람_ SNU 윈드 앙상블 연주회
실내악의 향연_ Spirit of SNU String IV
현을 마추하는 감동_ SNU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화합, 악기의 울림, 그리고 청중과의 소통_ 국악과 대학원 연주회
우리의 멋과 흥, 그리고 소리_ 국악과 협연의 밤
이색적인 국악의 미(美)_ 국악과 정기연주회

30

리뷰 & 리포트

서울대 가족과 관악구민을 위한_ 화요음악회

32

감사합니다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설립기념회
이운형 문화재단-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장학기금 협약식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36

SNU Photo Gallery

2014_2 Fall

38

강의실을 찾아서

추풍동류_ 정악합주/양경숙 교수
푸가의 성을 쌓다_ 대위법/최우정 교수

42

음악대학 연구프로젝트 탐방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_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 및 APP 개발

44

언덕방

13년 만의 선거, 그리고 소통의 시작_ 음악대학 학생회
책 읽는 음악가, 삶을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우치다 타츠루)이민희
평범함은 우수함의 적이다_ 박종화 기악과 교수
잊을 수 없는 다색적 음악 경험, 노르웨이_ 손민경
Adieu, SNU_ 졸업연주 후기
4인 4색의 그들_ 학생 연주팀/량대부 스트링 콰르텟
비운 뒤 옴트다_ 학생 연주팀/비움

54

졸업생을 찾아서

오랜만에 내 감성에 물을 주다_ 80세의 피아니스트, 서울대-남가주대 음대 동창회 음악회에서 연주/정낙영
주부에서 다시 피아니스트로 카네기홀에 서기까지_ 바르톡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예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박초현
국악, 한국을 알리기 위한 미국 땅에서의 도전_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대학 즉흥연주과 가이금 전공/김도연

56

박사논문 소개

로시니 테너 연구_ 박준석

57

SNU 포토 에세이

58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60

교수동정

04 Dean's Message

06 Main Events

2014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s
STUDIO2021_ Ensemble Adventure at SNU,
Sukhi Kang at 80
Interview_ Sukhi Kang, Composer
Special Lecture_Prof. Hermann Danuser

16 Interviews

Jin-woo Chung, Pianist
Prof. Attila Jun, New Professor to the Dept. of Vocal Music
Prof. Yong Hoon, Lee New Professor to the Dept. of Vocal Music

22 Masterpieces by SNU Music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SNU Wind Ensemble
Spirit of SNU Strings IV
SNU String Ensemble
Dept. of Korean Music Regular Concert of Grad. School
Concerto Night of the Dept. of Korean Music
Dept. of Korean Music Regular Concert

30 Review & Report

SNU Tuesday Concerts

32 Appreciation

Late Prof. Chung Choo, Oh Memorial Scholarship
Woon-Hyung Lee Found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36 SNU Photo Gallery

2014_2 Fall

38 Classroom

Court Music ensemble_Prof. Kyung Sook Yang
Counterpoint_Prof. Ujong Choe

42 Expedition into Research of College of Music

Digitalization of Sound Source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APP. Development

44 Essay

Establishment of the Student Council of the SNU College of Music
Book Review_Min Hee Lee
Mediocrity is the enemy of excellence_Prof. Jong Hwa Park
Exchange Student Program Essay_Min-gyeong Son, University of Oslo, Norway
Adieu SNU
Four Ladies, Four colors_Rendezvous String Quartet
Sprouting after the rain_BE:UM

54 Finding SNU Alumni

80-year-old Pianist performed at Annual Concert of SNU College of Music Alumni Association in Southern California_Nak Young Jung
The winner of the 33rd Bartok-Kabalevsky-Prokofiev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performed at Carnegie Hall_Cho Hyun Park
Master's student in New England Conservatory, Contemporary Improvisation_Do-yeon Kim.

56 About Dissertation

Research on the use of Tenor in Rossini's
music/ Jun-seok Park.

57 SNU Photo Essay

58 Bravo! Prize Winner

60 Faculty Activities

인사의 말씀.



희망이 넘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음악대학의 지난 활동과 새로운 소식들을
제15호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는
여러 교수님의 모습과
성실하게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며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학기,
음악대학은
학내 여러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왔고,
잘츠부르크의 모짜르테움 대학, 인디애나 음대, 클리블랜드 음대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음악대학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세계 속의 서울음대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헌신해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그동안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기금으로 도움 주시는
기부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대 음대는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관악산 곳곳에 돌아나는 새싹처럼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넘치는 삼월에
우리 대학이 올 해도
아름답고 풍성한 숲을 함께 가꾸어가기 기대합니다.

2015. 3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김귀현

Dean's Message

Welcoming the new semester full of hope and expectation, the College of Music put all the news and activities of the last semester into this 15th issue of the College of Music Newsletter.

You will be able to see our faculty members actively engaging in their own field of profession and thus becoming a paragon and inspiration to students, as well as students who ceaselessly training and learning with diligence and ambition.

During the last semester, the SNU College of Music remedied major and minor problems, and we will surely advance and become a conservatoire of the world by exchanging with major music institutes of the US and Europe like Universität Mozarteum Salzburg,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and 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I thank all the faculty members and staffs who have put efforts in i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contributors who have been giving financial support and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ith your unfailing interest and support, our College of Music will be able to advance at a greater pace.

In March, a month full of new energy and hope,
Like those buds and sprouts on Mt. Gwan-ak,
I expect our College of Music to unite in one
And cultivate beautiful and abundant woods together.

Sincerely,

March, 2015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오케스트라에
젊음을 담다.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2014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s

On last November 6th, the SNU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an outstanding performance as a participant in the 2014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a new classical music festival coordinated by the Seoul Arts Center. The SNU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with Prof. Hun-Joung Lim as a director and Prof. Hee-Sung Joo as a piano soloist. The programs of the day included the Overture from Wagner's opera <Tannhauser>, Liszt's <Totentanz S. 126>, and Berlioz's <Symphonie Fantastique Op. 14>.

지난 11월 6일, 예술의전당이 기획한 신개념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인 '2014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연주를 펼쳤다.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 축제는, 국내 정상급 지휘자들과 음악대학 교수들이 협연자로 나서 서울대, 한예종을 비롯한 국내 우수 대학교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연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가운데 '청춘예찬, 오케스트라에 젊음을 담다'라는 부제로 열린 '2014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는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임헌정 교수의 지휘, 그리고 주희성 교수의 피아노 협연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 동안 말러, 슈트라우스, 스트라빈스키 등의 대곡들을 훌륭히 연주해왔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열정과 탁월한 기량을 널리 선보여 왔던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날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 리스트의 《토텐탄츠 S.126》,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Op.14》를 연주했다.

첫 번째로 연주된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은 영혼과 육체의 대립을 주제로 한 이 오페라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으며, 서곡만으로도 장중한 오페라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려한 선율과 열정 가득한 연주는 관객들에게 첫 번째 무대부터 벽찬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무대는 주희성 교수의 협연으로 연주된 리스트의 《토텐탄츠 S.126》이 장식했다. '죽음의 무도'로 알려진 이 작품은 리스트가 1838년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에서 피사의 카포 산토에서 벽화 "죽음의 승리"를 감상하고, 10년 뒤 이에 대한 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레퀴엠이나 죽은 자를 위한 미사에 사용되는 '분노의 날'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주희성 교수의 화려한 기교와 강렬한 인상, 그리고 음악적 깊이가 담긴 피아노 연주와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음악성이 결합된 이 연주는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순서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Op.14》가 연주되었다. 24세의 청년 베를리오즈가 프림라돈나 해리엇 스미슨에게 실연당한 슬픔 속에서 썼다고 알려진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정열적 로맨티시즘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곡

으로, 전 악장을 통해 젊은 예술가의 연인에 대한 심경, 환상과 몽환 속 연인의 모습을 다양한 선율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연주된 작품 중 가장 대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과 섬세한 연주, 그리고 임헌정 교수의 탁월한 해석은 베를리오즈의 정열적 로맨티시즘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우수한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이는 무대였다.

연주를 마친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이해선(더블베이스 · 12)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웅장한 곡들이었기 때문에,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5악장을 연주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연주를 마친 후, 그 어떤 날보다 극대화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곡에 비해 오케스트라 전체적인 호흡이 중요한 것 같아 더욱 예민하게 신경 쓰며 연주했던 것 같다"고 연주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한 맹진석(피아노 · 12) 학생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던 했지만 정말 멋진 연주였다. 주희성 교수님의 리스트는 정말 카리스마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2006)'에서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연주하고, 독일 만하임 음대와의 합동 연주(2001-2005)를 여러 차례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함께한 오케스트라 워크숍을 여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번 '2014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를 통해 '죽음'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탁월한 기량으로 소화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 한 단계 도약한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본다.

Ensemble Aventure at SNU _ STUDIO2021

'Ensemble Aventure'의 무대가 지난 10월 7일 서울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 시리즈 STUDIO2021의 2014년 가을시즌 기획으로, 'Ensemble Aventure at SNU'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연주된 'Concert I'과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Concert II', 이렇게 두 차례로 구성된 공연이었다

작곡가와 연주자, 음악학자가 한데 모여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공간을 모토로 2003년 시작된 STUDIO2021은 매년 여러 가지 기획과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여 보다 연주자와 작곡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작업공간이 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STUDIO2021에서는 현대음악전문 연주단체로서 뛰어난 연주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수상경력과 함께 모험적인 시도로서 각광받고 있는 'Ensemble Aventure'의 연주를 이번 2014년 가을 시즌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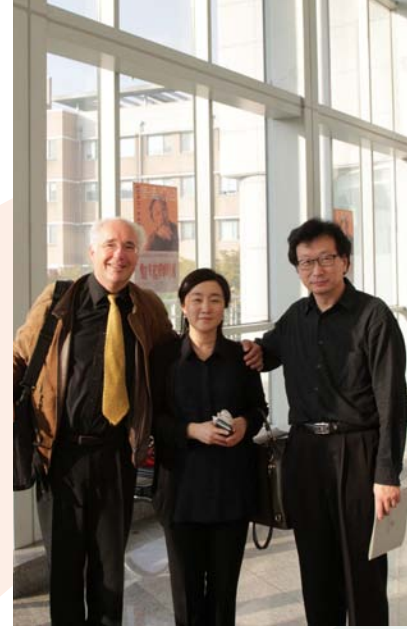
두 차례의 연주회 중 보다 앞선 5시에 열렸던 'Concert I'에서는 젊은 한국 작곡가인 송향숙, 김수혜, 이승은, 임성완, 심은영, 김승연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그 중 김수혜, 이승은, 김승연의 작품은 이번 연주회를 위해 위촉된 신작이며, 임성완의 작품은 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다. 연주단체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신작이 연주되는 상당히 모험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신작이 연주되는 프로그램의 연주회로서는 드물게 연주된 작품들이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었으며, 연주의 수준 또한 'Ensemble Aventure'의 이름에 기대되는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7시에 있었던 'Concert II'는 독일 작곡가들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 Roland Breitenfeld와 Wolfgang Motz, Nicolaus A. Huber, Johannes Schöllhorn, Violeta Dinescu, Ernst Helmuth Flammer의 작품들과 함께 김규동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연주된 작품들 중 A. Huber의 《La Force du Vertige für Flöte, Klarinette in B, Violine, Violoncello und Klavier》와, Dinescu의 《Trio für Oboe, Klarinette in B and Fagott》는 80년대에 작곡된 작품으로,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당시에 이미 명성을 쌓고 활발히 활동했던 A. Huber의 작품은 그의 리듬작법과 독일적 경향의 음색작법이 결합된



Ensemble Aventure at SNU_ STUDIO2021

A stage by the 'Ensemble Aventure'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on last October 7th. This concert was apart of the fall-season concert series of STUDIO2021, and it was divided in two main parts: Concert I consisted of the pieces composed by young Korean composers, who are represented by the name 'Ensemble Aventure', and Concert II mainly consisted of the pieces of German composers. STUDIO2021, which started out in 2003 with the theme of providing an interactive working space for composers, performers and musicologists to see the actual process of art work coming to reality, has been continuing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and organize concerts.



작품이었으며, 루마니아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활동한 Dinescu의 작품은 보다 선이 굵고 단순미가 있는 동구권의 특색이 살아있는 작품이었다. 다른 작품들은 비교적 2000년 이후의 비교적 최근에 작곡된 작품들로서 음색과 공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던 20세기의 음악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지향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전통이 된 20세기 중후반 독일의 음악적 경향과 함께 최근의 변화와 나아가는 방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독일의 현대음악전문 연주단체인 'Ensemble Aventure'가 연주하는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속적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에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Ensemble Aventure'는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연주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는 'Ensemble Aventure'라도 상당한 준비를 필요로 했으리라 예상된다. 필자가 자리했던 'Ensemble Aventure'의 연습과 무대리허설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가능케 한 'Ensemble Aventure'의 단원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의 작품들은, 보다 'Ensemble Aventure'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Concert II'는 차치하더라도 'Concert I'의 경우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이 작품에 대해 열정을 보이며 연구할 만한 것들이 담겨있는 작품들이었다. 작곡가 송향숙은 작품과 작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즈와 즉흥연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번 작품을 쓰면서 청중들이 가볍고 편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했지만, 쓰는 작곡가는 정말 힘들었노라고 작곡 시의 어려움을 술회했다.

작품의 내실 외에도, 청중들은 이번 연주회의 좋았던 점 또 한 가지로 작품들 성격의 다채로움도 꼽았다. 각각의 개성과 작품경향이 서로 다른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위촉함으로써 다수의 신작을 위촉하면서도 다채로운 작품들이 연주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기획한 것 또한 청중의 좋은 반응에 대한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생각된다. 1부 연주회의 기획은 다수의 신작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품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작품경향이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하면서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영리함이 발휘된 기획이었다. 또한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Concert I'과 독일의 기성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Concert II', 이렇게

상반된 컨셉의 연주회를 준비한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두 연주회를 연속으로 배치한 것은 준비도 감상도 만만치 않게 되게 했지만 말이다.

'Ensemble Aventure'와 함께한 STUDIO2021의 이번 가을시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고, 준비한 사람들도 함께하며 결실을 맛 본 사람들에게도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앞으로도 STUDIO2021 시리즈가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며, 이것이 더욱 알려져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한 풍성한 현대음악의 장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김승연(음악과 작곡전공 수료)

STUDIO2021.

Sukhi Kang at 80

작곡가 강석희 80세 기념 공연

STUDIO2021_ Sukhi Kang at 80

On last October 18th, a very special concert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In the concert, a memorial film titled '80 years with Modern Music, Sukhi Kang', are corded life of Sukhi Kang as a composer, and the performance video of Kang's 'Suksaja' was played and Dr. Jung-eun Seo's lecture titled 'Composer Ahead of his Time, in celebration of the 80th birthday of Sukhi Kang' immediately followed. In the second half of the program, Violist Yoshiko Hanny a world-premiered his new piece 'Chaconne', Jung-Hun Kim premiered his 'femerr AND II', which was written in celebration of his teacher's 80th birthday, and other works of Kang, 'Pyeongchang's Four Season', 'Vortex' and 'Fantasy' were performed by Violinist Kyung-sun Lee, the SNU Virtuosi and other musicians.





지난 10월 18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본교 명예교수이자 한국 현대음악의 거목 작곡가, 강석희의 산수(傘壽)를 기념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과 강석희의 제자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Sukhi Kang at 80"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추상적 이미지와 컴퓨터음향이 결합된 강석희의 《석사자》와 창작가로서 그의 생애를 기록한 기념 영상 〈현대음악과 함께 한 80년, 강석희〉가 상영되었고, 〈시대를 앞서간 창작가, 강석희의 팔십세를 기념하여〉라는 주제로 서정은 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일본에서 이 행사를 위해 내한한 비올리스트 요시코 하나가 신작 《샤콘느》를 세계 초연하였고, 또한 스승의 80세를 기념하여 작곡된 김정훈의 《ferner rAND II》가 초연되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을 비롯한 국내 연주자들과 SNU 비루투오지에 의해 《평창의 사계》, 《보르텍스》, 《환타지》가 연주되었다. 또한 본교 김귀현 음대학장을 비롯하여 작곡가 백병동 서울대 명예교수, 화가 최인수 서울대 명예교수,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 이상만 음악평론가, 이만방 숙명여대 명예교수, 작곡가 진은숙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등 많은 제자 및 동료,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강 교수의 산수를 축하했다.

강석희의 산수를 기념하는 음악회는 본 공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폴란드 등지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작곡가 강석희의 세계적인 명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04.30 "한테라의 가아금 Revelation"
국립현대미술관 1층 멀티프로젝트홀

05.08 "세계적인 작곡가 강석희 팔십기념 헌정 음악회, 한테라의 가아금 - Revelation"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05.13 서울국제음악제, "Italy-Korea Contemporary Music"
금호아트홀

06.28 Gardens Festival in Warsaw, Ensemble Katowice
Garden Poland Warsaw

08.26 아츠 페스티벌 디멘전
일신희

09.30 운지희, "Joy on the Strings"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10.08 "강석희 팔십음악회" ET 앙상블
Tokyo Opera City Concert Hall

10.17 "아르스노바 시리즈 IV 관현악콘서트"
서울시향 아르스노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인터뷰

현대음악의 전령.

작곡가 강석희



Interview of Composer Sukhi Kang

I met composer Sukhi Kang on December 30th. Sukhi Kang, who still writes score on sheet music in his den full of scores and books and tells his travel story while enjoying a cup of coffee, was still an active composer, organizer and teacher in my eyes. There are so much more that he will show us but looking back, he has already given us so much and the path of his life is adjoined with the 'nows' of the Korean Modern Music.

한국 현대음악의 궤적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강석희라는 큰 존재를 만나게 된다. 세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유럽과 미국,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작품을 쓴 거장 작곡가. 현대음악제와 음악단체를 이끌며 국내외에 많은 음악을 소개해준 조직자이자 선구자.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 작년은 강석희가 80세가 되는 해였다.

2014년이 끝나기 하루 전인 12월 30일, 작곡가 강석희의 자택에서 그를 만나 보았다. 악보와 책이 빼곡한 서재에서 오선보를 펼쳐놓고 곡을 쓰고, 커피를 즐기며 여행담을 들려주는 강석희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조직자이자, 스승이었다. 강석희가 들려준 음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를 되돌아봤을 때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음악은 이미 많은 것을 남겨주었고 그가 지나온 길은 한국 현대음악이 지나온 '오늘'들의 지표와 맞닿아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선생님의 80세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어땠는지요?

공연이 무척 많았지. 바빴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아르스 노바에서 피아노 협주곡도 연주했고, STUDIO2021도 있었고, 폴란드에서도, 일본에서도 공연이 있었어. 특별히 올해 감회가 다른 게 있다면 이신우 선생이 STUDIO2021 공연을 무척 열심히 준비해 줬다는 거지. 너무 고맙지.

STUDIO2021 공연에서는 2014년에 새로 작곡하신 위촉곡 《비올라를 위한 사콘느》도 연주되었습니다.

맞아요. 비올라 솔로 곡은 이전에 내가 쓴 적이 없고, 솔로 곡도 그리 많이 쓰진 않았어. 예전에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솔로를 위한 《탈》을 쓴 적도 있었지. 《아니리》도 있고. 이번 작품도 집중해서 작곡한 곡이야. 창작이라는 것, 작곡이라는 게 만들어놓고 나면 만족스러운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나는 한 곡이 끝나면 항상 만족스러워. 완전히 몰입해서 작곡하기 때문인 것 같아. 연주를 들어도 기분이 좋고.

저도 이전에는 선생님의 앙상블이나 대편성 작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작품들인 것 같았습니다. 곡들도 정말 다양하구요.

모든 곡은 다 달라야 돼. 항상 같은 스타일로 쓰는 것도 물론 명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한테 있어서 모든 곡은 달라야 돼. 작곡이라는 건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작품마다 고유한 힘을 가져야 하고.

그럼 작곡가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창작자는 독불장군이어야 해. 사과리에 가보면 큰 동물들은 혼자 유유히 돌아다니지. 엄청난 놈들, 난 그게 작곡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구력도 있어야 해.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소리를 강하게 들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제가 알면 알수록 더 놀랐던 점은, 작곡가로서의 창작활동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페스티벌도 만드시고, 국제 협회활동도 하시고, 다양할 뿐 아니라 무척 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랬지. 범음악제(Pan Music Festival)도 만들었고, 국제 활동(국제현대음악협회 ISCM)도 했고, 학교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도 많이 유학 보냈지. 나는 한국에 현대음악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현대음악페스티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소개해야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범음악제를 하고 있었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웠는지, 지금 내 제자들도 중요한 현대 음악제를 각자 하고 있지.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르네상스 다방(낙원동에 있던 음악다방)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클래식음악을 공부하시던 때, 다른 하나는 윤이상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던 때요.

대학시절 르네상스에서 1년 동안 음악만 들으면서 음악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음악 외에 문학, 철학, 수학 등 모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지. 큰 원동력이 됐어. 내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었지. 작곡가로서 살려면 몰라선 안 될 것들이니까. 르네상스가 예술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한국에서 윤이상 선생님과 공부하면서는 유럽의 현대음악을 정말 뼈삭하게 배웠지. 윤이상 선생님이 독일로 돌아가실 때 한국에도 현대음악제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 폴란드에서도 현대음악제가 생긴 이후로 음악계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69년에 한국에서 첫 번째 현대음악제가 열렸어요.

그렇지. 굉장히 쇼킹했지. 백남준이 나한테 헌정한 곡도 있었고, 나도 백남준한테 헌정한 곡도 있었고, 슈톡하우젠 작품도 연주했어. 말하자면 한국에서 하나의 효시를 이룬 것이지. 음악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독일에 있다가 음악제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최 측이 20일 전에 공연을 취소해버린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을 구하고, 공연장도 얻어서 이미 취소된 공연을 예정대로 올린 적도 있었지. 대단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대성공이었지. 아무튼 한국에서 현대음악제라는 건 69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지. 지금은 현대음악 페스티벌이 아주 많아. 범음악제도 계속되고 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하는 아르스 노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STUDIO 2021, 통영국제음악제도 그렇고 정말 많아졌어.

요즘 하고 계신 작업과 2015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심포니를 하나 써야 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말한 김에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2015년에는 강석희음악연구소에서 하는 공연이 있을 거고, 소리울앙상블이라는 곳에서 '코리안스쿨'이란 걸 시작하는데 그걸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음악계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음대에서도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음대에서는 어떠셨나요?

음대생활을 참 즐겁게 했어. 특히 서울대에 온 지 얼마 안됐을 때 작곡과 4학년 분석시간을 맡았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 한 시간 반짜리 수업을 네 시간씩 수업했었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거의 다 쏟아냈지. 그 땐 학생이라기보다는 후배라는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갔어. 훌륭한 제자들이 많아서 기뻐고, 내가 잘 가르쳤다고보다는 제자들이 뛰어나게 성장해줘서 너무 고맙지. 가르치는 게 참 즐거웠어.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지(웃음). 현대음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통상 '현대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의 음악'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싶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작곡한 작품들,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

신예슬(음악과 이론전공 석사과정)

현대음악의
과거와 미래。

헤르만 다누저 교수 특별강연

Special Lecture by Prof. Hermann Danuser

On last September 29th, Prof. Hermann Danuser, are known musicologist, gave two interesting lectures on the Modern music-the first lecture titled “Der Erste Weltkrieg-eine ‘Urkatastrophe’ der Musikgeschichte?” and the second one “From composition to sound design, from sound design to composition”. His lectures had been valuable times that allowed the SNU students to consider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Modern music in depth.



지난 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과연 현대 음악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 20세기 이래 온갖 급진적 시도가 이뤄졌던 현대음악에, 21세기인 지금 또 어떠한 새로운 실험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에서는 독일 훔볼트 대학교 헤르만 다누저(Hermann Danuser) 교수의 특강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누저 교수는 음악학의 거목 칼 달하우스(Carl Dahlhaus, 1928-1989)의 직계제자이며, 20세기 음악사에 관한 독창적인 저작들과 문체 의식으로 전 세계 음악학계에서 크게 주목 받는 음악학자이다.

오전, 오후에 걸쳐 과거와 미래의 현대음악에 관해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두 개의 특강이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특강 “제 1차 세계대전-음악사의 대참사인가?”(Der Erste Weltkrieg - eine "Urkatastrophe" der Musikgeschichte?)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현대음악에 끼친 음악사적 영향을 다뤘다. 이 도발적인 제목의 특강에서 다누저 교수는 독창적인 논지를 펼쳤다. 폭격으로 인해 골조만 앙상하게 남은 흉물스런 건물,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 전후의 황폐한 분위기, 삶의 터전을 잃은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 길 잃은 고아 등 1차 세계대전이 주는 이미지는 단연 가공할만한 파괴성과 참혹함일 것이다. 그러나 다누저 교수는 1차 세계대전이 오히려 새로운 음악 장르가 꽃피는 발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봄의 희생’이 단순히 산 제물로 바친 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풍요를 불러온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역시 음악계에서 자정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 낭자했던 유행과 뼈아픈 재앙은 새로운 장르들을 탄생시켰다. 옛 음악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졌다. 그는 음악장르가 음악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및 사회문화와 함께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시 새롭게 나타난 여섯 개의 음악 문화들은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음악문화와 해석문화, 다매체적 소리문화, 그리고 재즈문화였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부분문화들이 각자 고립된 채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첫 번째 강의 중 아쉬웠던 것은 한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세계대전과 새로 나타난 음악문화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면모가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토대에서 창조적인 음악문화를 가능케 했다는 주장이 아주 흥미로웠다.

두 번째 특강은 ‘작곡에서 사운드 디자인으로, 사운드 디자인에서 작곡으로’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음악장르인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 조망하는 시간이었다. 이 특강은 그 전 주에 있었던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포럼에서도 발표되었던 것이다. ‘사운드 디자인’이란 주어진 음향을 조작하고 변형하여 만들어내는 음악으로, 멀티미디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음악의 영역에서는 루솔로(Luigi Russolo, 1885-1947)와 바레즈(Edgar Varese, 1883-1965)를 비롯하여 사운드 디자인의 초기 작업이라 할 만한 작품들이 등장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사운드 디자인이 발달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사운드 디자인이 기존의 작곡과 개념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작곡에는 기보와 연주, 해석이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운드 디자인은 재료로서 음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또한 작곡에는 음악이 전개되는 시간적 과정과 대조, 발전, 변형, 절정이 중요하다면, 사운드 디자인은 개별적 음향들의 그룹이 중요하다. 사운드 디자인에게 더 이상 화성학이나 대위법은 중요하지 않다. 주어진 악보를 그대로 소리로 실행하는 연주자의 능력도 중요치 않다. 이에 따라 이제에는 타 영역의 예술가들도 사운드 디자이너로 성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사운드 디자인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쿠비쉬(C. Kubisch), 다니엘 오토(Daniel Ott), 크라이들러(J. Kreidler)는 각각 미술대학 교수, 음향무대예술가, 개념 예술가이다. 이처럼 사운드 디자인은 조형예술을 비롯한 음악 외의 다른 장르와 많이 협업하고 있다. 강의 중간 중간 사운드 디자인에 속한 많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30초라는 곡의 전체 시간 안에 7만 200개의 음악을 인용한 음악 등 기존의 음악적 개념을 훨씬 벗어나는 음악도 있었다.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장르가 새로운 조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특강이 끝난 직후 많은 이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사운드 디자인이 연주와 청취 등 기존의 음악적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떠한 미학적 척도로 사운드 디자인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가?’와 같은 날카롭고 복합적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날 두 개의 특강은 다누저 교수 특유의 음악사적 연륜과 빼어난 관찰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대음악이 가쁘게 걸어왔던 과거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었고, 어떻게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가는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재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 과거 현대음악이 걸어왔던 길을 토대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해보는 것은 음악학도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원유선 (음악학 박사과정)



‘더 나옴’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

정
피아니스트 진
우

지난 9월 5일, 서초구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제 59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는 뛰어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예술 발전에 공헌을 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음악 부문에 정진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진우 교수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초창기 피아노 음악계를 개척해 오늘날에 이르도록 힘써온 큰 스승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다녀 온 정진우 교수는 1959년에 서울대 음대 교수로 부임하여 후학을 양성했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명예 교수로서 활동해왔다. 그는 세계 음악계와의 교류를 위해 1999년 한국쇼팽협회를, 2005년에는 한국베토벤협회를 창립했다.

정진우 교수의 첫 독주회는 1952년에 피난지 부산에서 열렸다. 그는 “그 시절의 클래식 연주회는 주로 여러 악기가 등장하는 종합적인 연주회가 대부분이라 독주회는 거의 없었어요. 피아노를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

게 수소문해서 신고 왔는데 전쟁에서 부상당한, 더군다나 의사 출신의 연주자가 독주회를 한다니까 떠들썩했죠. 부산 이화대학 강당이 딱 찼고 강당 밖에도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고 들었을 정도였어요.”라며 첫 독주회 당시를 회상했다. 피아노는 6.25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뒤 절망에 빠져 있던 정진우 교수를 다시 일으켜준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서울대 부임 후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 묻자 그는 음악대학의 설립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학을 다녀오자마자 제의를 받았죠. 을지로에 있던 약대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현재명 박사께서 그 건물을 음악대학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구제품 피아노를 모아오고 연습실을 만들었지요.” 바이올린의 박민중 교수, 첼로의 전봉초 교수와 함께 ‘서울대 트리오’를 결성해 초창기 실내악 활동을 이끌었던 것 또한 인상 깊은 활동이라고 하였다.

정진우 교수는 오랜 세월동안 ‘정진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신수정 교수, 박종화 교수 등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계를 이끌어 가는 저명한 음악가들의 뒤에는 정진우 교수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는 오늘 날에도 제자들의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제자들의 연주회를 볼 때마다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어느 땐 이쉽고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아요. 제자가 좋은 연주를 하고 잘되면 그게 기쁜 거지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진우 교수의 책장에는 지금껏 가르친 학생들의 레슨 기록서들이 그대로 보관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궁금해 하자 정진우 교수는 “의사로서 진단서를 쓰던 게 습관이 돼서 학생을 가르칠 때도 레슨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해야 숙제가 있었는지, 뭘 배웠는지 기억하기도 좋고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참고할 수도 있어요.”라며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불어 그는 노래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예전에는 다들 피아노를 테크닉 위주로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학생이랑 같이 노래하면서 이런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먼저 가르쳤지요. 만약 학생이 연습을 별로 안했을 때 더 신나고 빠르게 노래하면 그 학생이 스스로 연습을 해오겠다고 해요.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는 거죠.” 그는 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할 때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교사는 다양한 사람의 음악에 대응하고 개개인에 맞게끔 목표를 정해서 가르쳐야해요. 음악회에 가면 연주자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건데 레슨도 다르지 않아요. 학생의 특징을 파악해서 좋은 특징은 길러주고 나쁜 특징은 잡아주는 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정진우 교수는 현재 음악을 배우는 젊은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했다. “예술가가 다른 직업과 다른 점은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습도 필요한 것이고, 발전이 없으면 잡도 못 이룰 정도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시험 볼 때만 연습하고 그 다음엔 해방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태도를 갖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는 “다만, 희망을 크게 가지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꿈은 누구나 처음에는 크게 가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현실에 맞추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라며 겸손한 태도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진우 교수의 음악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음악인들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피아노와 현악 전문 잡지를 창간하여 30년이 넘도록 운영해오고 있으며 불과 2년 전에는 그의 첫 독주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사이틀을 열기도 하였다.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까지의 연장이죠. 음악가의 생활은 늘 반성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개인적인 발전보다 음악계 전체의 발전, 제자들의 발전을 더 바라고 있어요. 항상 명심하는 점은 그 많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것이예요. 제가 잘못하면 곧 제자의 명예와 모교의 명예도 함께 손상이 되니까요.”

개인의 성취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음악계 전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온 정진우 교수. 음악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과 신념을 바탕으로 ‘처음’의 길을 개척해 온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INTERVIEW OF Pianist Jin-woo Chung

Pianist Jin-woo Chung, Professor emeritus at the SNU College of Music,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musicians who devoted his life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piano music in Korea. He had taught as a professor at College of Music since 1959, and wa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music, like founding music magazine series and chamber music ensemble team. Many of the leading musicians in Korea were once under the instruction of Prof. emer. Chung. “We must examine ourselves on daily-basis and strive to make tomorrow a better day.” Prof. emer. Chung said. We can learn the life of a real musician through his life.





전

성악과 신입교수

승

현

오페라 가수 'Attila Jun', 교육자 '전승현'으로 관악에 돌아오다.

지난 11월 19일, 이른 아침 관악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서울대 성악과로 부임하신 전승현 교수님을 찾았다. 아침 8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미소로 맞아준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 일찍 나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일찍 와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음악을 들으며 출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또한 일찍 나와 연습하는 학생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승현 교수는 1997년 서울대 음대 대학원 재학 당시 빈에서 열린 벨베데레 성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2위를 차지했고, 1999년에는 ‘로엔그린’으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최연소 가수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 베이스 궁정가수와 주역가수로 눈부시게 활약했던 그는, 지난 2013년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니벨룽의 반지’ 중 ‘신들의 황혼’의 하겐 역으로 열연했다.

그에게 신입교수가 된 소감을 묻자 “무엇보다 제가 학생으로 공부했던 서울대학교에 교수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후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라며 모교에 부임하게 된 감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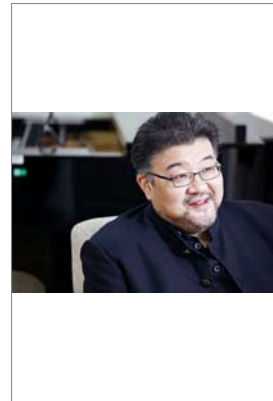
독일 정부로부터 궁정가수의 칭호를 받은 그는 1998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무대를 시작으로, 2002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투란도트’의 티무르 역, 2004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달란트 역으로 열연하는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했다. 화려했던 해외무대를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묻자 “사실 20대 후반부터 한국과 독일의 몇몇 음악대학에서 교수임용 제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수가 되기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로 오게 된 이유는 모교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곧 후배를 가르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그의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학생들의 레슨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에게 오페라 가수로서의 스케줄과 교수로서의 스케줄 중 어느 것이 더 소화하기 힘든지 묻자 “교수가 훨씬 바쁩니다. 오페라 가수는 다른 가수들과의 앙상블, 연기연습 시간 이외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공연 날 저녁에 가서 노래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했어요.”라고 답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오페라 가수 시절에 비해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는 교수의 직책은 그에게 남다른 부담감과 의무감을 주기도 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이 남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미래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서 좋은 연극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생으로서의 부담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밤 10시까지 남아서 연습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합창단, 중창단 활동을 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술 중학교·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외국 가수가 없고, 모르는 레퍼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창 시절 그만의 연습비법을 묻자 “비법이 없죠. 연습을 재밌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시험이나 공연을 앞두고도 ‘해야겠다’는 의무감보다는 ‘재밌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놀이터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라며 “학교에 정을 붙이고 연습을 즐기면 연습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묻자, 그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학생과의 시간약속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외국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랫동안 노래하는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로린 마젤이나 주빈 메타와 공연을 할 때 저는 연습시간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니다. 그것과 똑같이 학생들과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는 레슨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연극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그는 “학생들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보를 끼고 다니면서 곡을 분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매일 아침을 연습으로 시작하는 열정적인 성악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학생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는 전승현 교수. 앞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가수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교육자로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INTERVIEW OF NEW PROFESSOR: Attila Jun of Dept. of Vocal Music

On last November 19th, I went to go visit Prof. Attila Jun, who recently came to the SNU Department of Vocal Music. Prof. Jun has been titled a court singer by the German government and began his career as an opera singer in 1998 in Stuttgart and continued to perform internationally, including taking a role as Timur of ‘Turandot’ in San Francisco in 2002 and Daland in Der Fliegende Holländer (The Flying Dutchman) in 2004. He is still an active bass singer who begins his day with daily practice, and now he is an instructor who cares for the future of his students more than his own. I look forward to see him excelling as a singer who grabs audience’s heart as well as educator that respect students.



사랑과
감동의
가르침。

이
성악과 신임교수 **이용훈**

“

학생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INTERVIEW OF NEW PROFESSOR

Prof. Yong Hoon, Lee of Dept. of Vocal Music

How many people would there be around us that engage themselves in their own profession with such a firm belief and smile full of happiness everyday? For sure, Prof. Lee would be one of such people, who first met his career at the age of 21 but now vigorously sings and performs in best stages around the world. He wishes to become an instructor who shows and inspires his students through action, not by words. I look forward to see him loving music all the more and meets his students with passion in the future.

이토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초지일관 뚜렷한 신념과 행복한 미소로 임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는 바로 21살 늦은 나이에 성악을 처음 접해 현재는 세계 최고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 중인 이용훈 교수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미국 매네스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200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돈 카를로'로 데뷔하였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베를린 국립오페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 밀라노 라스칼라 등 꿈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여러 유명 무대에서만 활동하던 그가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온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람을 표했다.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저의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 기대되기도 하고, 또 모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차기도 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청년시절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성악을 전공한 친구에게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일주일에 8kg가 찌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을 공부하고 음대수석으로 성악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묻자 "제가 생각할 때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터닝 포인트 선상에 위치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채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터닝 포인트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라고 답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터뷰 내내 겸손한 자세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미 있는 성공된 삶이란 맹목적으로 성공만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또,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성공된 삶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된 삶 아닐까요?"

그는 단순히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선배로 학생들을 대하고자 했다. "학생들이 테크닉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보다 더욱 뛰어난 음악가가 되려면 테크닉은 기본이거니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감각이 중요하죠.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이예요. 선생님이 그 방향을 가르쳐 줄 때 그 길을 봐야지 선생님 손끝을 보면 아무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덧붙여 그는 학생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나를 기억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르쳤던 방향, 추구했던 그 인생의 방향을 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는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연주가 진정성 있는 연주라며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것을 표현해야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음악'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예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인생, 사랑, 분노 등을 표현하는 것이지, 음악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알아야 하지만, 음악 외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연주만 잘하면 그것은 서커스나 다름없겠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자 할 때는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최종 꿈에 대해 물었다.

"크리스찬 뮤지션으로서 기록한 샘플이 되는 것이예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할 때 계획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죽을 때 까지 찾고 구해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저의 최종 꿈입니다."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와 굳은 신념을 보여주었던 이용훈 교수. 앞으로도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학생들을 열정으로 대하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미래의 주역들,
그 도약의 무대.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I

On last October 2nd, the regular concert of the Philharmonic Orchestra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Philharmonic Orchestra staged the Overture of Verdi's opera <La forza Del Destino> and Bizet's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has been demonstrating new attempts and effort that inspires and attracts audience and its walk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be bright and fruitful.

I 코끝으로 진한 가을내음이 전해지던 지난 10월 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전반부를 장식한 베르디 오페라의 서곡은 박준현(지휘·13) 학생의 지휘 하에 연주되었다. 이 날, 화려한 화음과 멜로디로 하나가 되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은 18세기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4막의 오페라로, 베르디 오페라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이 오페라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운명은 극복할 수 없다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다. 금관악기의 웅장한 서주를 시작으로, 현악기 선율과 애조를 띤 목관악기가 곡 전체를 지배하였다.

이어 비제의 《교향곡 제 1번 C장조》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비제가 학창시절에 작곡한 곡으로, 탐구적인 진지함과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함, 젊은 생명력이 특징이다. 특히, 1악장에서는 선율이나 화성, 리듬에 있어서 선배 고전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아 고전적인 인상을 주지만, 4악장에서는 이와 달리 19세기 오페라의 서곡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후반부의 지휘를 맡은 김준영(지휘·13) 학생은 열정적인 지휘로 연주에 임하였고 청중들은 이에 박수로 응하였다.

이 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늘 새로운 시도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II The Night of Concertos

On last October 31s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titled 'The Night of Concertos with Double Bass, Cello, and Viola'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concert began with the lively performance of the Overture of J. Strauss II's operetta <Die Fledermaus> and Vanhal's <Double Bass Concerto in D major>, Tchaikovsky's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in A major, Op. 33> and Bartok's <Viola Concerto Sz. 120> followed. The success of the concert could be achieved with the joint effort of students' hard work and excellent performance ability as musicians and the concert closed with a great applause from the audience.

지난 10월 31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더블베이스와 첼로, 비올라가 함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이 열렸다. 이 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의 경쾌한 서곡을 시작으로, 반할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D장조》와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바르톡의 《비올라 협주곡 Sz.120》 등 총 4곡이 연주되었다.

김영랑(지휘 · 석사) 학생의 열정적인 지휘 하에 연주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은 가벼운 희극에 노래와 대사, 왈츠 · 폴카 · 칸강 등의 춤이 섞여 있는 오락성이 풍부한 곡이다. 연주 내내, 또 연주가 끝난 후에도 청중들은 한동안 강렬한 음악의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이어서 김준영(지휘 · 13)의 지휘로 반할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D 장조》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더블베이스의 카덴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곡으로, 협연하였던 이혜선(더블베이스 · 12) 학생의 뛰어난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반부 시작을 알린 윤경운(첼로 · 13) 학생의 열정적인 첼로 연주는 청중들이 보다 더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7개의 변주는 다채로운 표현과 다양한 리듬, 우아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며 솔로의 기량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 바르톡의 《비올라 협주곡 Sz.120》이 연주되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바르톡은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지만, 그의 아들과 친구가 이를 재구성하고 완성시켰다. 지휘자 김영랑의 지휘 하에 비올라 협연의 이건희(비올라 · 12) 학생과 오케스트라 단원들 전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발전된 기량이 돋보이는 협주곡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연주회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정이 깃든 무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11월 26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웅장한 슬라브 행진곡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이날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이자 관현악의 대가 차이코프스키(P. I. Tchaikovsky)를 주제로 하여, 세르비아 행진곡이라고도 불리는 《슬라브 행진곡》과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교향곡 제 4번》이 연주되었다.

첫 곡은 이규서(지휘 · 13)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이 곡은 터키와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세르비아의 부상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사용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러시아의 민족적 기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이재영(피아노 · 14)의 협연으로 격정적인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이 연주되었다. 이 곡에서는 피아니스트의 마법적인 음색과 비르투오시티를 느낄 수 있었다. 정한결(지휘 · 12)의 지휘 하에 하나 되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의 후반부는 《교향곡 제 4번》이 장식하였다. 곡의 시작 부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팡파르는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운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표제음악적인 면모를 띤다. 이 곡은 이전의 세계의 교향곡과는 달리 엄격한 서구의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일대기적

인 음악을 선호하는 낭만주의자의 경향과 일치하지만 다른 낭만주의자들보다도 더욱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음악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 순서의 지휘는 현재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 중인 지휘자 김광현이 맡았다. 그는 명쾌한 해석력과 시종일관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차이코프스키를 주제로 한 이번 연주는 러시아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사할 수 없는 독특한 선율, 피아노의 화려한 독주, 그리고 친근미가 넘치는 주제와 강렬한 슬라브 체취 등의 특징들을 통하여 문화관 대강당에 모여 있던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청중의 다수는 청소년들이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무대 위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길 바란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On November 26th,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on campus in the main concert hall of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The theme of the concert was Russia's musical pride P. I. Tchaikovsky, a virtuoso composer of orchestral music, thus the SNU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Slavonic March Op. 31', which is also known as the 'Serbo-Russian March', 'Piano Concerto No. 1 in b flat minor, Op. 23' and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This concert with the theme of Tchaikovsky grabbed the audience's attention and greatly impressed them by successfully demonstrating the unique melody lines that people could hardly perform unless they are Russian, outstanding piano accompaniment, and the themes full of familiarity and acquaintance, as well as the powerful Slavic taste.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바람.

SNU 윈드 앙상블 연주회



I 무더위가 지나가던 8월 2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2014 SNU 윈드 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최경환 교수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공연의 전반부는 스페인 작가 앙헬 페레스 데 사베드라의 동명의 희곡을 토대로 작곡된 《운명의 힘》과 에스파냐에서의 질박한 전원생활을 모티브로 구성한 이야기를 토대로 작곡된 파야의 《삼각모자》, 그리고 안드레 졸리베가 작곡한 재즈의 영향을 받은 곡인 《트럼펫 협주곡 제 2번》이 연주되었다.

트럼펫 협연자로 등장한 성재창 교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이날 공연에서도 원숙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후반부는 이날 공연에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은 곡인 야기사와 사토시의 《마추피추》로 시작됐다. 이어서 강렬한 오프닝 악장에서부터 아름답고 섬세한 대위법이 두드러지는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인 알프레드 리드의 《교향곡 제 3번》이 연주되었다.

19세기 작품인 베르디의 곡에서부터 20세기 리드와 야기사와의 현대적인 곡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 이날의 연주회는 다시 한 번 SNU 윈드 앙상블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학생들의 세계적인 기량과 최경환 교수의 탁월한 지휘가 결합된 이날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손문영(작곡이론 · 09)

SNU Wind Ensemble I

Last August 26th was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Wind Ensemble of 2014 and it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Prof. Kyung-Hwan Choi took up the baton for the ensemble's concert as a conductor, and they together performed G. Verdi's 'La Forza del Destino', M. de Falla's 'The Three Cornered Hat', A. Jolivet's 'Trumpet Concerto No. 2', Yagisawa Satoshi's 'Machu Picchu- City in the Sky' and A. Reed's 'Symphony No. 3'. This concert, covering a broad range of musical repertoires from 19th century's Verdi to the modern pieces of 20th century's Reed and Yagisawa, created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time travel from past to present back and forth and experience the outstanding performance level of the SNU Wind Ensemble again.



II 12월 1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김영률 교수의 지휘 아래 SNU 윈드 앙상블 연주회가 열렸다. 국내 관악계의 젊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SNU 윈드 앙상블의 이번 연주회는 지난해 서울대 음대 성악과로 부임한 전승현 신임교수가 처음으로 참여한 교내 연주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작곡된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곡》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성악과 전승현 교수와 SNU 윈드 앙상블이 함께 이은상의 시에 작곡가 채동선이 곡을 붙인 가곡 《그리워》와 바그너의 오페라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중 '아가야, 이 낯선 분을 환영해야지'를 연주했다.

《그리워》에서는 전승현 교수의 목소리와 관악기만의 애잔한 음색으로 옛날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했다. 또한 이태리 오페라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2004년 오페라 《방향하는 네덜란드인》으로 데뷔한 전승현 교수와 SNU 윈드 앙상블의 우수한 연주력이 만나 선보인 수준 높은 연주는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연주되었다. 본래 피아노로 연주되던 곡을 관악으로 편곡하여 새로운 음색으로 들려주어 관객으로 하여금 음악적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무대였다. 세계 정상급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국내의 연주로 학생들의 음악적 성숙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국내 관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SNU 윈드 앙상블의 앞으로의 성공적인 연주를 기대해본다.

SNU Wind Ensemble II

A concert was held on December 12th by the SNU Wind Ensemble with Prof. Young-Yul Kim's conducting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concert began with Tchaikovsky's 'Romeo and Juliet Fantasy Overture', which was then immediately followed by Dong-sun Chae's 'Longing' with Prof. Attila Jun's vocal accompaniment, aria 'Mögst du, mein Kind' from Wagner's opera 'Der fliegende Holländer', and Mussorgsky's 'Pictures at an Exhibition'. This concert was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on-campus concert in which Prof. Attila Jun, new to the SNU College of Music who was just appointed last year, participated.

실내악의 향연.

Spirit of SNU Strings IV



11월 16일,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Spirit of SNU Strings IV 음악회가 열렸다. 이 음악회는 1993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악전공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발전기금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이 발전기금은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유명 아티스트 초청 마스터클래스 개최 등과 더불어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현악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Spirit of SNU Strings IV 연주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이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악전공 교수진인 백주영(기악과 · 바이올린), 최은식(기악과 · 비올라), 박노을(기악과 · 첼로)과 교내 실내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무대로는 라벨의 3개의 실내악 작품 중 하나인 《현악 4중주 F장조》가 연주되었다. 드뷔시나 프랑크의 현악 4중주 작품 이후의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이 곡은 라벨이 “음악적 구상 의지에 응답한” 최초의 작품이며,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에는 김소정(바이올린 · 13), 김예지(바이올린 · 13), 윤유리(비올라 · 13), 민서연(첼로 · 13) 학생이 참여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김계희(바이올린 · 13), 이은새(바이올린 · 13), 이건희(비올라 · 12), 윤설(첼로 · 14) 학생이 연주한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4중주 제 1번 D장조, Op.11》이 이어졌다. 적절히 정제된 슬라브 정서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우수감과 함께 고독감을 전해주는 이 곡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많은 현악 4중주 마니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특히 2악

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편안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선율이 마음의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곡으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곡을 처음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작품은 화성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브람스의 《현악 6중주 제 2번 G장조, Op.36》이었다. 이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실패로 실의에 빠져 약혼자인 아가테와 이별을 한 브람스가 5년 후 그녀의 소식을 접한 뒤 작곡한 작품이자, 클라라에 대한 그의 사랑의 염원을 간절히 표현했던 곡에 썼던 주제를 이 곡에 온전히 배어 있게 한 것이기도 하다. 연주에는 교수진인 백주영(기악과, 바이올린), 최은식(기악과 · 비올라), 박노을(기악과 · 첼로)과 조민지(바이올린 · 10), 김규리(비올라 · 10), 강민지(첼로 · 13) 학생이 화성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 출연진이 무대로 나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를 연주했다. 백주영 교수는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칭찬하며 흐트한 미소를 지었다. 더불어 교수진 대표로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4명의 출연진이 한 마음으로 연주한 이 곡은 음악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실내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Spirit of SNU Strings IV 음악회에서 현악전공 교수진과 학생들은 최상의 연주 실력으로 진정한 의미의 앙상블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늦가을 정취와 함께 실내악에 대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을 관객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난 감동 있는 무대였다.

Spirit of SNU Strings IV

There was a concert titled “Spirit of SNU Strings IV” held on last November 16th in the IBK Chamber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organized by the String major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The pieces performed in the concert include Ravel’s ‘String Quartet in F major’, Tchaikovsky’s ‘String Quartet No. 1 in D Major, Op. 11’ and Brahms’s ‘String Sextet No. 2 in G Major, Op. 36’. For this “Spirit of SNU Strings IV” concert, some of the best musicians in Korea participated as performers, like faculty members of the Strings major, Prof. Ju-Young Baek, Ensik Choi, and Noll Park, and the finalists of the campus chamber music auditions, and all of them together created a superb music concert with high quality.

현을 마주하는 감동. SNU String Ensemble

11월 24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String Ensemble 음악회가 열렸다. 구리시 교향악단을 이끌고 유럽순회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력이 있는 강창우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 음악회의 전반부는 드뷔시의 《춤곡(Dances) 제 1, 2번》으로 시작되었으며, 심소정 학생의 하프 솔로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봄'(바이올린 솔로: 신동찬),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과 '가을'(바이올린 솔로: 전효진, 조세원), 그리고 다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바이올린 솔로: 김은지)이 이어졌다.

후반부의 첫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 2번 D장조》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연 학생이 협연했다. 이어서 이 음악회의 마지막 곡으로 벨라 바르토크의 《현악합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제 1, 3 악장》이 연주되었다. 춤곡, 사계, 협연과 현악합주 등 다채로운 소재를 지닌 곡들이 전해준 색다른 감동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끝으로 SNU String Ensemble 음악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NU String Ensemble

On November 24th, regular concert of SNU String Ensemble was held at the Conce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 The concert featured C. Debussy's <Dances>, A. Piazzolla's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A. Vivaldi's <The Four Seasons>, accompanied performance of J. Haydn's <Cello Concerto No.2 in D Major> by junior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Yeon Park, and B. Bartok's <Divertimento for String Orchestra> on stage.



화합, 악기의 울림, 청중과의 소통. 국악과 대학원 연주회

11월 2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국악과 대학원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올해로 제 3회를 맞는 이 연주회는 소규모 편성임에도 창작곡과 독주 그리고 산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으며, 대학원생들은 평소와 같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첫 번째 연주는 평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명산》을 피리 독주로 변주한 곡으로, 조이고 푸는 피리 특유의 표현방법과 화려한 시김새가 일품이었다. 이어 조선시대 가곡 반주곡을 양금, 대금, 생황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변주한 《수룡음》이 연주되었다. 화음을 낼 수 있는 국악기인 생황, 청아한 음색의 양금, 맑고 고운 대금 가락의 어우러짐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곡은 《서용석류 해금산조》로, 계면조 가락에서 최소리 학생의 독특한 장단이 돋보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곡으로 장단의 자유로움과 자연 배음이 주는 편안한 소리가 인상적인 이견용 작곡의 《배음조 허튼가락》, 음색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었던 나효신 작곡의 《선율의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이 연주되었다. 마지막 곡은 윤혜진 작곡의 《씨 안의 나무속의 씨》로 다양한 국악기들의 합주가 돋보인 작품이었다. 국악기가 가지고 있는 여백의 미와 악기의 울림, 내부적 화합이 잘 드러났던 무대였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연주자가 청중들과 가까이 소통하였을 뿐 아니라, 연주자 서로간의 울림을 통한 소통도 인상적이었다. 연주자 자신들의 음악적인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가감 없이 전해준 이번 연주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Regular Concert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last November 28th, the annual graduates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of College of Music of the SNU. This year's concert was its 3rd concert,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small ensembles, new composition, solo performance and Sanjo music. Showing what they learned and were capable of, this concert w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graduate students to express their skills and talents.





우리의 멋과 흥,
그리고 소리.

국악과 협연의 밤

Concerto Nigh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Last September 22nd was the Concerto Nigh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ith gayageum, geomungo, haegeum and daegeum and it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It was very meaning night full of love and interests toward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early all the seats in the concert hall was filled with the audience. In the concert, <달빛향해>, <한오백년>, <고구려의 여운>, <가을을 위한 도드리>, <녹아내리는 빙하>, and <남도아리랑> were performed. The audience was able to see the orchestra and soloists uniting together in one with the lead of the conductor, and the concert hall was abundant with vivid and colorful sounds and beauty of Hanbok.



가을내음이 물씬 풍기던 9월 2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이 함께하는 '국악과 협연의 밤'이 열렸다. 콘서트홀의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국악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과 사랑은 대단했다.

이날 <달빛향해>를 비롯해 총 6개의 곡이 연주되었다. 1부 지휘는 지휘자 채길룡이, 2부 지휘는 지휘자 이승환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통음악의 장단과 리듬이 현대적인 기법 안에 세련되게 녹아들어 있는 <달빛향해>를 시작으로, 이서영의 가야금 협연이 눈부셨던 <한오백년>과 만주별판을 달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를 거문고 연주법으로 소화해낸 박정민, 김민규 협연의 <고구려의 여운>이 연주되었다.

2부 순서에서는 힘찬 여름빛에서 차디찬 어둠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왕정은 해금 협연의 <가을을 위한 도드리>와 한이 서려있는 대금연주로 청중들의 마음을 빼앗은 심현리 협연의 <녹아내리는 빙하>.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 선율과 밀양 아리랑의 메나리가락, 중간의 활기찬 타악연주로 우리음악의 멋과 흥에 흠뻑 젖게 했던 <남도아리랑>이 무대를 장식하였다.

이날, 지휘자의 지휘 하에 하나 되는 관현악단과 솔리스트들을 볼 수 있었고 다채로운 음색과 화려한 한복이 어우러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가락을 널리 알릴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11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채워졌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연주 시작 전부터 이미 청중들의 국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의 열기가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번 연주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관악합주, 아쟁독주, 현악합주, 민속악합주로 이루어졌으며, 2부는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음악, 가야금 협주곡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다.

1부는 조선시대 연례악이나 왕의 행차 때 연주되던 《해령》으로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두 번째 곡은 《박종선류 아쟁산조》로, 국악 특유의 강약조절이 인상적이었다. 연주자 김재훈 학생의 아쟁 독주는 한의 감정이 충만하게 전달되었으며, 선율 흐름에서 고도의 기교가 돋보였다. 세 번째 곡은 정대석 작곡의 《파랑 노랑 빨강》으로, 거문고의 대현에서 묻어난 목직한 푸르름과 해금의 유연하고 얇은 노오란 빛깔, 그리고 영롱하고 초롱초롱 밝게 비치는 빠알간 빛깔을 소리로 형상화한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는 자연의 소리를 관현의 울림으로 표현한 《공명》이 연주되면서 1부의 막을 내렸다.

2부에서는 서양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져 더 흥미진진하고 인상적이었던 무대였다. 위촉초연인 김승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음악》으로 2부의 막을 올렸다. 전통적인 어법을 가지고 새로운 화성의 가능성과 단순하고 느린 악장 속에서 악기들 간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킨 웅장한 무대였다. 두 번째 곡

인 가야금 협주곡 《혼불 II》(나의 님이 너에게 물어)는 여성작가 최명희의 〈혼불〉에 담겨진 삶의 정신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등장부터 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김철진 학생의 독주는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듯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격렬하게 음의 무늬를 짜나갔다. 마지막 곡은 황호준 작곡의 《범피중류》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에 앞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바라본 풍경을 묘사한 대목이었다. 이 곡은 다소 확장된 국악 관현악편성으로, 타악기의 다양한 음색을 통해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성악부분의 신유진, 김유림 학생의 노래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의 처절한 심정을 절절히 표현해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 열정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국악과 정기연주회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Regular Concert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last November 11th, the annual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the Yeakdang of National Gugak Center. The programs performed for the concert proved hugely entertaining and pleasurable to the audience.

Appreciating the Korean-specific and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Music, the audience responded with passionate applause and participation.

이색적인
국악의 미(美).

국악과 정기연주회

서울대 가족과
관악구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s

The SNU Tuesday Concerts, a series of concert held on Tuesdays organized for the SNU members and the residents of Gwanak Gu, had been held from September 16th to November 4th.

Famous and talented musicians, like Pianist Hyung-jun Chang, J. Aubakirova, Hyung-min Lee, and Yunjie Chen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NU Tuesday Concerts as performers. In addition, the audience was able to experience outstanding performances of the SNU Wood wind Ensemble, Rendezvous String Quartet, the finalist of the student audition, Edith Quartet,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Modern Music attempted by CMB567.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 공연 행사로서, 관객들에게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수요음악회'로 시작되어 1996년에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바꾼 뒤 현재까지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며 계속되고 있는 본 연주회는 관객들이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2학기 화요음악회는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9.16

첫 번째 화요음악회는 자니아 아우바키로바(J. Aubakirova)와 장형준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로 시작되었다. 아우바키로바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여류 피아니스트이며, 장형준은 서울대 피아노과 교수로서 다양하고 폭 넓은 활동을 시도하는 연주자이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는 라흐마니노프(S. Rachmaninoff)의 《피아노 듀엣 모음곡 Op.11》, 드보르작(A. Dvorak)의 《슬라브 무곡 Op.46》을 함께 연주하며 호흡을 맞추었다.



10.14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장형준, 이형민, 천원지에의 피아노 연주로 이루어졌다. 뛰어난 연주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이형민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천원지에(Yunjie Chen)가 모차르트(W. A. Mozart)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제 1악장》을 포핸드로 연주하며 무대의 시작을 열었다. 천원지에는 모차르트의 《론도》, 리스트(F. Liszt)의 《라캄파넬라》의 2곡, 쇼팽(F. Chopin)의 《연습곡 제 5번 Op.10》, 프로코피예프(S. Prokofiev)의 《연습곡 제 1번》을 독주하며 깔끔하고 화려한 기교와 음악성을 드러냈다. 이형민과 장형준은 라벨의 《마 메르 루아》 중 제 1, 3, 5번을 듀오로 연주하였고,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모두 무대에 등장해 요한 슈트라우스(J. Strauss)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선보이며 막을 내렸다. 이날 연주회는 피아노 음악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구성이었다.

10.21

세 번째 화요음악회에서는 세 팀의 SNU 목관앙상블이 연주하였다. 먼저 윤희리 교수와 열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SNU 플룻 앙상블이 모차르트(W. A. Mozart)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바흐(J. S. Bach)의 칸타타 《양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롯시니(G. Rossini)의 《윌리엄 텔》 서곡을 청아한 음색으로 연주하였다. SNU 목관 8중주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제 11번 K.375》를 통해 목관음악의 풍성한 울림을 들려주었고, 이어서 색소폰 4중주팀인 S.WITH(여요한, 김수룡, 최영현, 장원진)는 피아졸라(A. Piazzola)의 《리베르탱고》, 포레(G. Faure)의 《파반느》, 비제(G. Bizet)의 《카르멘 판타지》로 점차 깊어가는 가을날에 어울리는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음악을 선사했다.

10.28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학생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랑데뷰 콰르텟과 이디스 콰르텟의 무대로 구성되었다. 이름 그대로 ‘화합’과 ‘만남’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단된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장윤화, 유정민, 홍은주, 백현경)은 하이든(F. J. Haydn)의 《현악 사중주 제 4번 ‘일출’ Op. 76》을 조화롭고 안정적인 연주로 들려주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디스 콰르텟(김소정, 김예지, 윤유리, 민서연)은 서정성으로 가득한 라벨(M. Ravel)의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였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두 팀의 연주를 듣는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실내악에 한층 더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1.4

마지막 화요음악회에서는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CMB567의 연주가 펼쳐졌다. CMB(Contemporary Music Band)567은 현대음악과 한국음악을 접목하여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이야기하고자 결성된 순수 창작 및 연주 단체로,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CMB567의 리더인 작곡가 김기영이 해설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였으며, 이정민의 《이화우》, 황호준의 《종생기》, 《호접지몽》, 김기영의 《눈 속의 단풍잎》, 박영란의 《겨울》이 연주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동양적인 시적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배출한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국내외에서 학교와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또한 교내에서는 학우들이 더 큰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학업과 실기에 매진하며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여러 고마운 손길들이 있다. 그 손길 중에서도,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이 단연 든든하고 따스한 손길이 아닐까.

故오정주 교수님(1931~1983)은 1953년 이화여대 피아노과 재학 중 도미하여, 이사가 음대(Ithaca College School of Music)를 수료하고, 줄리어드 음대(Julliard School of Music)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여, 1960년 서울대 음대 교수로 부임하셨던 분이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헌신적인 교육자이기도 했지만, 1947년 서울대 주최 음악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한 이래 많은 음악회에 출연한 연주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여는 등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960년 귀국한 뒤에도 국내외에서 독주회, 실내악 연주 및 국내 우수 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83년 9월 1일 KAL기 사건으로 갑작스럽고 안타깝게 타계하셨다. 한국음악계의 큰 별이 지던 날이었다.

故오정주 교수의 부군 김동훈 고려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서울대 동문, 화학과 48년 입학)는 피아노 교육에 매진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오다 장남 김규현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차남 김상현 교수(한양대)와 논의하여 30주기인 2013년에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을 통해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대상은 피아노 전공 학부생 중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장애우 학생으로 정하였다.

다른 한편, 故오정주 교수 제자동문회에서는 10주기와 20주기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추모 활동을 펼쳐 왔으며 제자 동문들과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장학금을 모금하여 매년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학부생 중 실기 우수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바 있다.

유가족은 故오정주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오래도록 장학금을 운영해 오신 제자동문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일한 취지의 장학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서울대 발전기금”을 통해 두 장학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자동문회에 제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19일 유가족이 약 1억 6천 8백만 원, 제자동문회가 약 8천 2백만 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출연하여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이 설립됐다. 총 출연금 중 1억 5천여만 원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학부생 중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장애우 학생을 대상으로, 1억 원은 제자동문회의 이전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전공 학부생 중 실기 우수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지난 12월 15일 추모 장학기금 설립기념회가 서울대 라쿠치나에서 진행됐다. 김기현 학장님, 신수정 전학장님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피아노과 교수님이 참여하여, 故오정주 교수님을 기억하고, 그 뜻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들, 이제껏 음대에 이렇게 큰 기부를 한 분은 없었다고 입을 모으며, 너무나 황망스럽게 일찍 가셨다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차남 김상현 한양대 교수는 “서울대에 소액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학부생 중 저소득, 다문화가정, 장애우 학생 혹은 실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대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의 희망 사용처란에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을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

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통합 운영되는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 받으실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향후 전문 연주자나 교육자로서의 커리어를 잘 개척해 나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우리나라의 피아노 연주와 교육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동시에 피아노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대중화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당부하였다.



Late Prof. Chung Choo, Oh Memorial Scholarship

On November 19th 2014, the bereaved family of the Late Prof. Oh, Jung Joo and her Students' alumni association have contributed 168 million won and 82 million won respectively and formed the 'Late Prof. Oh, Jung Joo Memorial Scholarship'. Following the will of the bereaved family, 150 million won will be granted to undergraduate students of multicultural background, disabilities and low-income families, and the other 100 million won will be granted based on merit to the undergraduate students of piano major with outstanding practice demonstration, like previous scholarships granted by the Students Alumni Association.

이운형 문화재단

| 서울대 장학기금 협약식 |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23일 이운형문화재단과 서울대 음악대학의 장학 및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교동에 위치한 이운형 문화재단 본사에서 시행된 협약행사에는 세아그룹 박의숙 회장, 음악대학 김귀현 학장, 작곡이론과 오희숙 교수, 성악과 전승현 교수, 이운형 문화재단 관계자 등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운형 문화재단(Woon-Hyung Lee Foundation)은 세아그룹 故 이운형 회장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후원의 뜻을 이어 받아 발족된 문화 예술 후원 목적의 재단으로, 기업의 문화예술계 지원을 중시했던 고인의 뜻을 잇기 위해 오페라 등 순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앞장서왔다. 故 이운형 회장은 2000년부터 13년간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및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오페라의 대중화와 예술적 성취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악과의 우수 학생들은 이운형장학금과 해외 콩쿨 참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악과 주최 국내외 음악인의 마스터클래스 비용 등이 지원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산하 음악미학연구회의 음악총서 발간 및 음악학 연구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음악학계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귀현 음악대학 학장은 “재능있는 성악과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 세계무대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희숙 교수는 “음악학계의 고급 인력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저술활동과 연구 활동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운형 문화재단은 “아무췌록 이번 협약이 재능 있는 성악과 학생들과 음악미학연구회의 음악학 관련 이론·학술연구에 유용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음악인재의 산실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는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민희(음악학 박사과정)

SNU signed an agreement with Woon-Hyung Lee Foundation on establishment of scholarship, academic research fund and financial aid for the College of Music.

Through this agreement,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 are now able to receive scholarship as well as financial assistance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hosted abroad, and the funding for masterclasses organized and hosted by the Department of Vocal Music will be granted. In addition, Woon-Hyung Lee Foundation also agreed to fund publication of music research series and musicological research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esthetics Research, a College of Music-affiliated organization. Through this Development Fund Agreement between the College of Music and Woon-Hyung Lee Foundation, stable and convenient music research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발전기금출연자 명단

(단위 :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4.08.13
김규동	학술		50,000	2014.08.14
이돈응	위임		100,000	2014.08.14
이신우	위임		50,000	2014.08.14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4.08.14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회	3,000,000	2014.08.22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회	1,000,000	2014.08.22
김우진	위임		100,000	2014.08.25
전상직	위임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500,000	2014.08.2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	100,000	2014.08.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4.08.26
최강산	위임	관악전공기금	20,000	2014.08.26
이슬기	위임		300,000	2014.09.02
김지윤	위임		1,000,000	2014.09.05
故오정주 교수 가족	학술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6,500,000	2014.09.05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회	500,000	2014.09.12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4.09.15
故오정주 교수 가족	학술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9,000,000	2014.09.16
故오정주 교수 가족	학술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3,300,000	2014.09.16
故오정주 교수 제자 동문회	학술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77,000,000	2014.09.16
故오정주 교수 제자 동문회	학술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4,200,000	2014.09.16
故오정주 교수 가족	장학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150,000,000	2014.09.16
故오정주 교수 제자 동문회	장학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778,688	2014.09.16
김규동	학술		50,000	2014.09.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4.09.17
이신우	위임		50,000	2014.09.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4.09.17
김우진	위임		100,000	2014.09.25
전상직	위임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500,000	2014.09.2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	100,000	2014.09.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4.09.26
인송문화재단	학술	장학	6,000,000	2014.10.07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회	500,000	2014.10.13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4.10.15
김규동	학술		50,000	2014.10.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4.10.17
이신우	위임		50,000	2014.10.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4.10.17
전상직	위임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500,000	2014.10.27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	100,000	2014.10.27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4.10.28
김하늬	위임		200,000	2014.10.28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회	500,000	2014.11.11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4.11.14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김우진	위임		100,000	2014.11.14
김규동	학술		50,000	2014.11.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4.11.17
이신우	위임		50,000	2014.11.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4.11.17
김우진	위임		100,000	2014.11.25
전상직	위임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500,000	2014.11.2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	100,000	2014.11.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4.11.26
익명	위임		10,000,000	2014.12.01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학술	음악대학 프렌즈기금	15,000,000	2014.12.04
후원자00135	위임		2,500,000	2014.12.10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금	500,000	2014.12.11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4.12.12
(주)상지인터내쇼날	학술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10,000,000	2014.12.15
윤재돈	위임		1,000,000	2014.12.15
이현희	위임		1,000,000	2014.12.16
박승길	위임		1,000,000	2014.12.17
김규동	학술		50,000	2014.12.17
안유민	시설물		1,000,000	2014.12.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4.12.17
이신우	위임		50,000	2014.12.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4.12.17
황은상	위임		1,000,000	2014.12.19
이종원	위임		1,000,000	2014.12.22
김병삼	위임		1,000,000	2014.12.24
전상직	위임	음악대학 교수 발전기금	500,000	2014.12.26
김우진	위임		100,000	2014.12.26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	100,000	2014.12.26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4.12.29
성악과82학번동문	학술	장학	10,618,025	2014.12.31
이지영	위임		3,000,000	2014.12.31
박미혜	학술	테리장학금	500,000	2015.01.13
이기선	위임		286,800	2015.01.13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1.14
연광철	위임		10,000,000	2015.01.15
김규동	학술		50,000	2015.01.16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1.16
이신우	위임		50,000	2015.01.16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1.16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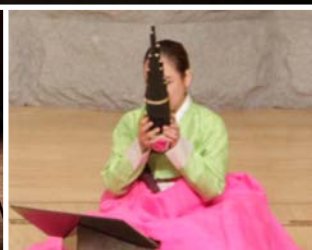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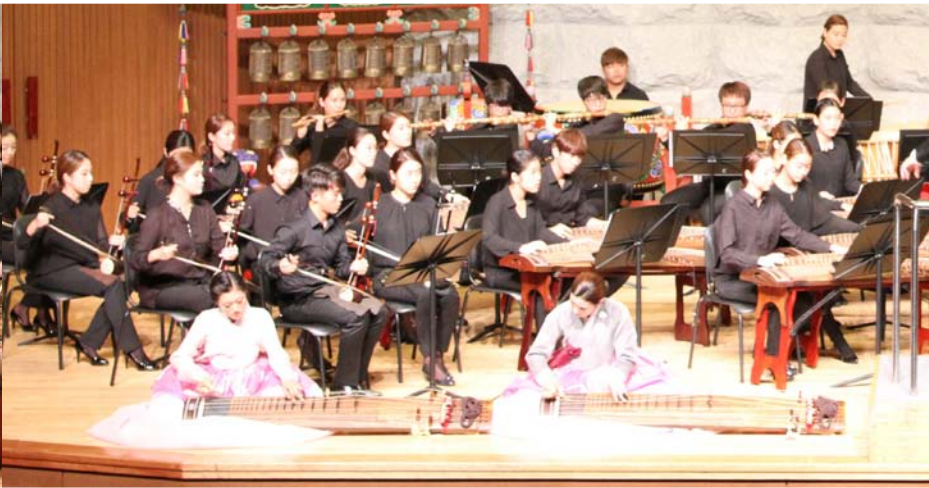
* 신용카드, 자동이체(CMS), 지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 합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02-880-8004)으로 연락 주십시오.



2014_2 Fall SNU Photo Gallery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수업

‘추풍동류’ (秋風冬流)

정악합주_ 양경숙 교수님



가을바람이 겨울로 흘러들어가던 11월의 어느 날, 줄풍류 《가근회상》의 선율이 흐르는 양경숙 교수님의 ‘정악합주’ 수업 강의실을 찾았다. 학생들의 자리배치부터 악기조율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양경숙 교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가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이내 연주 준비에 돌입했다. 깊은 울림의 거문고 선율이 《가근회상》 완주라는 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정악합주’ 강의실에 울려 퍼진 이 곡은, 현악기에 의한 풍류로 일정 구간 선율의 반복과 변주를 통한 심화와 확장, 그리고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이른바 ‘박자를 쌓아올리는 구조’가 특징적인 곡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예약사상에 기초한 음악인 ‘정악’을 배운다. 또한 선조들이 음악을 대했던 마음가짐인, ‘즐거워하되 정도를 넘지 않고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의 ‘낙이불류 애이불비(樂而不流 哀而不悲)’ 사상도 함께 배운다. 양경숙 교수님께서서는 “예약사상은 천지의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사상입니다. 정악은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지 않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격동적이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악의 특징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오는 30일에 있을 ‘2014 하반기 정악합주 연주회’를 앞둔 학생들에게 악보를 외울 것을 강조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정악합주는 무대에서 항상 악보 없이 연주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모든 악기가 한 선율을 연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선율을 연주하다가도 성부가 갈라지고, 또 다시 한 선율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부를 외워서 연주하는 동시에 다른 악기들의 선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귀로 들으면서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연습을 통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악합주’ 수업의 가장 큰 학습목표라고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며칠 뒤 있을 정악합주 연주회를 통해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연습했던 《가근회상》이라는 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가근회상》을 연주하던 도중 악보를 놓친 학생이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내 그 학생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악보를 짚어주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에 대한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시며 “원래 터키에서 전통음악을 하다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네요. 한국의 전통음악을 하고 싶어서 왔고, 지금은 해금을 배우고 있어요. 터키 국립대학의 경우, 각 지역에서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

CLASSROOM: Court Music ensemble by Prof. Kyung Sook Yang

On one fine day of November, I visited Prof. Kyung Sook Yang's Court Music Ensemble class, the room of which was full of the melody of <All Sorts of Remembrance for String ensemble>. Prof. Yang carefully monitored students' performance from seat arrangement to tuning as well as the musical mastery of the piece. She allowed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music as a construction of musical sound, which expands and develops through repetition of specific passages and derivation and building up of the beats with respect to time elapse, from the slow beginning to the fast ending.



을 뽑아 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처음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줄 알고 처음부터 배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이미 많이 배우고 왔더라고 하더군요"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합주이듯,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연주에 끝까지 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여러 스타일의 음악 중 본인이 선호하는 음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학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학부 과정의 목표이고, 제가 맡고 있는 '정악합주' 수업도 그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미래의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곧 있을 연주회를 위한 연습시간 문제를 논의했다. 정악합주 연주회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박소윤(피리·14) 학생은 "수업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정악단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변주현(해금·14) 학생은 "평상시에도 개인 연습을 하지만, 합주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가근회상》 같은 긴 곡은 혼자 연습하기 힘든데 이 수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수강소감을 밝혔다.

한 학기 동안 《가근회상》이라는 곡을 통해 정악과 예악사상에 한걸음 다가간 학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정악 연주자로서의 무대를 만들어주며, 학생들이 훌륭한 국악 연주자로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움을 주고 계신 양경숙 교수님. 줄풍류 《가근회상》이 흐르던 '정악합주' 강의실의 모습이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수업

푸가의 성을 쌓다.

대위법_ 최우정 교수님



CLASSROOM: Counterpoint/ Prof. Ujong Choe

Counterpoint is one of the fundamental compositional techniques crucial in the composition of music as well as in the analysis and is a graduation requirement for the SNU College of Music students. Prof. Choe is in charge of the counterpoint class scheduled for every Friday for composition major students. The object of the class is to equip students with the ability to analyze musical works on their own and apply them to their own composition. Students not only lear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but important techniques and knowledge to become real composers.

점차 2학기가 마무리로 접어드는 11월 28일, 최우정 교수님의 대위법 수업 강의실을 찾아갔다. 220동 417호에는 작곡전공 학생들의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 했다. 본 강의는 화성학과 더불어 음악을 분석하고 연주 및 작곡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이론인 대위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 음대생들은 각 전공 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최우정 교수님은 15년째 작곡전공생을 위한 대위법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다. 학생들은 총 네 학기에 걸쳐 라스소부터 바흐에 이르는 다양한 대위법 작품들을 배운다. 이번 학기에는 바흐의 푸가를 분석하고 학기말까지 푸가를 작곡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은 각자 바흐의 푸가 중 한 곡을 선택해서 나름의 해석을 더해 분석해왔다. 수업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푸가의 주제 분석을 하면서 작곡 기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셨다. 작곡전공생을 위한 수업에 걸맞게, 단순히 작품을 분석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작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거듭 질문하셨다.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한명씩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우정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수업 목표이기도 하다. 교수님은 “대위법은 하나의 이론 분야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곡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경우만 살펴봐도 대위법이 철저한 작곡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작곡가로서 대위법을 공부할 때 옛날 레퍼토리 분석을 통해 터득한 작곡 기법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한 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의문점을 제시하고 푸가의 종지를 맺는 방식과 해석에 대해 질문했다. 다른 학생들 또한 각자 선택한 푸가의 주제와 형식 구성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분석한 것을 이야기했다. 교수님은 구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주제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니?” 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이 계속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신 뒤 해당 부분의 작곡 기법과 대위법적 요소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해주셨다.

교수님의 설명에는 작곡가로서 실제로 곡을 쓰고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경험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이 수업 시간에 다른 요소들을 현대음악이나 무조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셨고, 창작을 할 때 작곡가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부하셨다. 최우정 교수님께 이러한 수업 방식을 택하신 이유에 대

해 묻자 “요즘 다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해온 것을 남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라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대위법 수업은 교수님의 지도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맞물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자신이 발표할 때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동안에도 주의 깊게 집중했다.

네 학기동안 대위법을 수강한 작곡과 학생들에게 수강 소감을 물었다. 유지수(작곡·13) 학생은 “이 수업에서 작품 분석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스킴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학기만으로는 공부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울 것이 많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라며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권정수(작곡·13) 학생은 이 수업의 장점에 대해 “여섯 학기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는 영상자료도 많이 보여주셨고 다양한 측면에서 음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이 수업을 들을 후배들에게 “교수님께서 평소에 설명해주시는 것들을 면밀히 복습하고 과제를 할 때도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배경 지식과 앞으로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작곡이라는 것이 집중력을 요구하는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곡가, 음악가로서 성장하게 될 학생들이 음악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스승으로서, 동시에 선배로서 전하는 진심이 담긴 조언이었다. 최우정 교수님의 대위법 수업은 작곡과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12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선정 콘텐츠
산업기술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 및 APP. 개발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이돈응 교수



디지털 국악기 패키지 **Gugak**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와 문화정체성 확립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CATSNU: Center for Arts & Technolog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하 예술과학센터)는 **Gugak**·Gugak)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국악기 모바일 앱과 가상악기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국악기 패키지를 선보여 왔다. 본 사업은 우리 음악인 국악이 양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점이 되어 구상되었으며,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예술과학센터가 제출한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 및 APP. 개발” 사업 계획안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술과학센터의 기존 연구들은 예술과 과학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왔다. 인터랙티브 하이브리드(interactive Hybrid) 악기를 활용하여 오랑우탄의 음악적 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한 오랑우탄 프로젝트와 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해 첨단 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연주단체 iHEAB (interactive Hybrid Electro-Acoustic Band)의 활동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Gugak 프로젝트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음악, 공학,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악기 음원의 디지털 소스화를 통한 음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UI 매핑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21개 국악기의

모바일 앱과 가상악기 개발이라는 연구 목표들을 달성했다.

Gugak 패키지 중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은 국악기 모바일 앱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 기기와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기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안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국악기 모바일 앱이 만들어졌다. 음원 확보를 위해 국악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연주자들의 소리를 최고의 녹음기술로 섬세하게 담아내어 실제 국악기 연주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기를 디지털화 하는 데 있어서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시김새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변미혜 교수는 예술과학센터에서 개발한 국악기 모바일 앱을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든 악곡을 독주 뿐 아니라 합주로 연주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콘텐츠”라고 평가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적 활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국악기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야금 4종 (정악, 산조, 18현, 25현)과 편종, 편경, 훈을 비롯한 다양한 국악기들의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손쉽게 연주해 볼 수 있다.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를 통해 구축된 음원 라이브러리는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전문 음악인들을 위한 가상악기(VSTi)를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작·편곡이나 사보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기존의 음악 소프트웨어들은 서양음악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국악곡 작업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음악 전공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국악 특유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디지털 악보로 손쉽게

EXPEDITION INTO COLLEGE OF MUSIC RESEARCH:

Establishment of Cultural Identity and Expansion of Base of Korean Music through 'Digital Instrument Package'

'Digitalization of Sound Source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APP. Development'

CATSNU, Center for Arts & Technolog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ed a brand named Gugak and has been showing various packages of digitalized Korean instruments package that consist of mobile app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virtual instruments. This project has started out from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 that people have less chance to encounter Korean music compared to western music.

표현할 수 있는 국악기호폰트(아래 그림)를 개발하고 다양한 음악 기호와 제어신호 체계의 표준화 방안도 연구했다.

이에 양질의 국악기 음원이 제공되고 국악의 다양한 기법들의 표현이 가능한 21개 국악기의 가상악기들이 Kontakt, EXS24, Ableton Live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32bit Windows에서 구동되는 VST3(Virtual Studio Technique 3) 규약에 맞춰 개발되었다.



사보 및 워드 프로세서용 국악기호 폰트와 자판배열



Finale에서 악보 상의 악기와 Kontakt 상의 악기와 연결된 예

가상악기 소프트웨어 및 국악폰트 등은 예술과학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공식 홈페이지: www.catsnu.com)

다양한 계층의 음악 소비자들을 두루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포맷의 디지털 국악기 패키지를 선보인 예술과학센터는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의 활용 및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바일 앱의 경우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초중등 음악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악교육학회와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들을 타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개별 악기의 앱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연구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며 현재 개별 앱들이 서로 연동되어 가상환경 속에서 동기 신호를 주며 합주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Gugak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국악의 저변 확대와 우리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기를 기대한다.

서윤정(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연구원)

* 책임연구원 : 이돈응

* 연구원 : 강효지, 고병량, 고병오, 김영선, 김태은, 김혜연, 남상봉, 문지성, 방정호, 서윤정, 유리나, 윤소정, 이강성, 이선진, 이두현, 조진욱

13년 만의 선거,
그리고 소통의 시작.

음악대학 학생회

13년 만에 선거를 치르고 학생회가 세워지기까지 부딪혔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학생회라는 단체가 학생들과 꽤 떨어져 있었어요.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의 이미지가 운동권 위주의, 그러니까 시위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거친 이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회가 생기면 하는 일이 교수님들 혹은 학교와 싸우는 것 아니냐는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회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음대는 오랫동안 학생회가 없었다보니 학교와 학생 사이 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대화의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학교도,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굉장히 위하고 배려해주려 한다는 점이에요. 대화를 해나가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의 학생회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학생회가 없었던 만큼 불편사항이나 희망사항 등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선거를 준비할 때 그랬던 것처럼 시시각각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새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계속 의견을 모으고,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 학교와 교수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차근차근 함께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해요.

ESTABLISHMENT OF THE STUDENT COUNCIL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ith the accumulating support of students of College of Music, the Student Council of the SNU College of Music finally relaunched in 13 years. From now on, the council will give heed to every little comments and voice of students and support students' happy life on campus.



음대생들의 톡톡 튀는 끼와 열정 사이에서 일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엉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요. 회의를 진행할 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다들 수다 떨듯이 진행하는 편인데, 그 수다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음대 학생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13년 동안 멈춰 있던 음대학생회의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지해주셨던 분들도,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따끔하게 지적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음악대학에 학생회를 꾸려나가면서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경청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대학생활을 지지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책은 자신만의 음성을 지닌다. 눈앞에 보이는 글자 너머 그 글자를 새기는 저자의 방식·의도·버릇이 책장에 배어남다. 어떤 저자는 고압적인 소리를 낸다. 어떤 저자는 신경질적이다. 또 어떤 저자는 글 안에 군데군데 빈틈이 보이고 그 사이로 생각의 빈약함이 흘러내린다. 때로는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불친절한 어투만이 뇌리에 남을 때도 있다.

책 내용은 그 다음이다.

여기 쉽게 만나보기 힘든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내는 ‘철학서’가 있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의 저자 타츠루(内田 樹)는 평범한 사람이 떠올릴 법한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답을 방대한 철학자의 글을 통해 되새김질한다. 저자가 한번 소화한 후 토해내는 구조주의(構造主義) 이론은 삶을 바라보는 보통의 시선이 된다.

도화지에 날카로운 샤프로 꼭꼭 눌러 복잡한 그림을 그린 다음, 그 그림을 지우개로 전부 다 지운 후 종이를 바라보는 느낌. 책 속 구조주의는 종이 위 희미하게 비치는 샤프 자국처럼 뼈대를 드러낸 투명한 모습이다. 요컨대 레비스트로스는 ‘우리 모두 사이 좋게 살아요’라고 말하며, 바르트는 ‘언어 사용이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외치고, 라캉은 ‘어른이 되어라’라고, 푸코는 ‘나는 바보가 싫다’고 중얼거린다. 저자는 구조주의가 우리 일상에 스며있는 ‘생각하기 방식’이며, 우리는 이미 그것에 너무도 익숙하다고 말한다.

사실 대부분의 철학서는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한 문장을 읽고 다음문장을 읽을 때면 먼저 읽은 문장이 저 멀리 도망가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서의 어려운 논리에 압도당한 채, 책 안에서 내 이야기를 풀어 놓을 공간을 찾지 못한다. 유능한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평범한 나는, 남이 헤집는 내 뱃속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처럼, 위대한 철학서 앞에서 나는 늘 수동적인 존재다. 그 피로감이란.

그러나 이 책은 다르다.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책을 꺼내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

삶을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BOOK REVIEW:
Minhee Lee

There is a philosophy book of very rare kind, which speaks with tender and soft voice. The author of this book has long been contemplating on very simple questions that a commoner can even question and wonder, and ruminate on the issue through reviewing enormous amount of literature written by philosophers. The structuralist theory that author emits after digesting them becomes a common perspective of looking at life.

어도 된다. 엄마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알아도 옆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댄다. 핸드폰에 대해, 감시기운에 대해, 남자친구에 대해, 도란도란하는 엄마의 음성 사이로 ‘구조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렇다. 혹 엄마의 잔소리가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다면 그즈음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책장 사이사이에 슬쩍 등장한다. 길쭉한 식탁에 나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과 나의 최근 관심사들, 책의 저자인 타츠루, 그리고 푸코·바르트·레비스트로스·라캉이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뜨끈한 국을 떠먹고 밥을 퍼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시간... 가끔씩 엄마의 음성이 들리고 사르트르와 카뮈, 사이드가 기웃거리는 그런 일상과 철학의 공존이 책 안에 펼쳐진다.

차이는 간단하다. 이 책은 쉽고 재밌다. “입문서가 흥미로운 것은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 물음 아래에 밑줄을 그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답할 수 없는 물음, 그러니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화폐란 무엇인가, 기호란 무엇인가, 교환이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일련의 물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근원적이고 인간적인 물음이다. 구조주의라는 사상이 아무리 난해하다고 해도, 그것을 세운 사상가들이 ‘인간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할까?’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 물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하고 깊었을 뿐이다. 결국 그들이 그 탁월한 지성을 구사해 해명하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담긴 본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민희(음악학 박사과정)

원제 : 寝ながら學べる構造主義 (자면서 배우는 구조주의/갈라파고스, 2010) ▶저 _ 우치다 타츠루(内田 樹) ▶역 _ 이경덕

에세이_ 박종화 기악과 교수

Mediocrity is the enemy of excellence.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평범함은 우수함의 적이다. 여기서 평범함이 상징하는 것은 균등, 일관성, 대중화 등등 전형적으로 우수함의 달성에 저항을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화가가 유용성을 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일관성을 위해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기법을 구사하고, 또 대중화를 염두에 두어 누구나 쉽게 첫눈에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림을 똑같이 몇 장 그렸다고 하자. 과연 이 그림이 우수하나? 미학적 철학 토론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단순한 논리로 본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녕 평범함을 상징하는 것들은 우수함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며 옹호할 수는 없는가? 필자는 이 해답을 핀란드 음악교육 시스템에서 찾았다.

핀란드 음악교육의 근대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17세기부터 교회에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음악이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위상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결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음악가 양성을 우선 순위 정책으로 내세우며 경제적 후원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시기적으로는 스웨덴과 러시아에 의한 몇 세기 동안의 침략과 군림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의 시작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의 배후에는 ‘교육의 균등화’라는 돌맹이로 사회적 양극화 완화 및 절실했던 경제 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있었다. 우선 인재 발굴에 나선 그들은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1863년에 처음으로 초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3년 후 독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초등교육 제도가 도입되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노래 수업을 진행해야 했던 교사들은 창법, 음악이론, 노래 반주를 위한 피아노를 필수로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범학교에서의 음악수업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것

이다. 음악수업을 완료하려면 졸업시험 시 들어보지 못한 몇 개의 노래를 수준급으로 노래하면서 세련된 화음 진행을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의 피아노 반주를 구사할 능력이 있어야 했다. 사범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20대 이상이라고 가능하고, 또한 그 지원생들의 대부분이 피아노를 공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추측할 때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음악수업을 성공리에 완료했다. 이것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사범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음악교육의 표준을 높게 책정하면서 첫 몇 세대들에게는 가파른 학습곡선(learning curve)을 안겨줬지만 뒤따르는 세대들에게는 고수준 음악교육의 촉진과 포뮬라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핀란드가 배출해 낸 세계적인 성악가들 중에서는 바로 이 초등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재능을 인정받아 발굴된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Martti Talvela와 Jorma Hynninen이 그렇다.

중등교육 교사를 희망하는 자들은 Sibelius Academy(구, Conservatory of Helsinki) 같은 핀란드 국내 최고 음악전문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다. 고등음악교육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1970년부터는 대대적인 교육 구조 개편을 강행했고, 그 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시스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틀어 종합학교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로 탈바꿈했으며 음악교육 또한 이 시스템에 맞추어 9년 플러스 1년(고등학교 3년 중 1년)의 교과목 편성으로 진화한다. 교사들의 재량이 세대마다 향상되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부터 음악수업은 단순한 노래 수업에서 기악, 청음, 이론, 율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음악적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된다. 핀란드에서는 유치원

Is Mediocrity the enemy of excellence?

ESSAY:
PROF. JONG-HWA PARK

Here, can someone still claim that mediocrity is the enemy of excellence? Musical education in Finland, which started out based on equality, consistency, and popularity, has developed into a system in which mediocrity supports excellence as well as a system that can imprint the value of excellence to the society in the process of enjoying the harvest. It is like the society and art creating a perfect round circle. Should I dare say ‘Mediocrity braces excellence’?

에 가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아동기에는 창의력을 최대한 발달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버릇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이 놀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핀란드에서 음악교실을 들여다보면 첼로를 가지고 원을 둘러앉은 아이들이 활로 한음씩 공중에 켜 날리면서 마치 암호화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음악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종합학교가 끝날 무렵에는 전문 음악가의 길을 걸어갈 자, 교육자로서 활동할 자와 음악에 견해가 깊은 아마추어들로 나누어진다. 물론 전문 음악가의 길을 갈 인물 중에서도 작곡가, 지휘자, 솔리스트는 극소수이며 이 소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유명한 핀란드 작곡가 Aulis Sallinen, Jouni Kaipainen, Kaija Saariaho, Einojuhani Rautavaara 등도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다. 그중에도 Rautavaara는 Sibelius Academy 종료 후 Sibelius에게 직접 선택되어 미국의 Julliard School을 국가장학생으로 마친 후 귀국하여 1971년에 Sibelius Academy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임명은 차세대대를 위한 교육보다는 Rautavaara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임명이었다. 지금 70세를 넘긴 Rautavaara의 작품 리스트는 그 어느 동

시대 작곡가보다 많다. 그는 아홉 개의 오페라와 여덟 개의 교향곡을 포함해 수많은 작품들을 소지하고 있다. Jouni Kaipainen의 경우는 Sibelius Academy 졸업 후 15년간 정부 보조금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Helsinki Symphony Orchestra 같은 핀란드의 우수 연주집단에서 종종 곡을 위촉 받는다. 그는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말한다. 핀란드 정부는 이런 콘텐츠를 자신들이 키운 국제 수준급의 연주자 및 지휘자와 연결해 음반 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핀란드 고유의 클래식 음악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각광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요가 로큰롤 음악을 넘본다고 한다. 초등교육 때부터 강조되는 음악교육의 힘이 여기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받은 대중은 대부분 아마추어급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핀란드 음악 생태계의 피라미드를 단단하게 받혀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평범함이 우수함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균등, 일관화, 대중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핀란드의 음악교육은 어느덧 평범함이 우수함을 지지하고, 그 수확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수함의 가치를 사회에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사회와 예술이 아름답고 완벽한 원을 이룬 셈이다. 감히 'Mediocrity braces Excellence'라고 말해도 될까?

평범함은 우수함의 적이다?



잊을 수 없는 다색적 음악 경험, 노르웨이。

작곡과 이론전공
손민경

나는 2013년 2학기부터 약 일 년 동안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처음에 나는 유럽에선 어떤 시스템으로 음악학을 공부하고, 그곳의 음악이 어떠한지 궁금증이 생겨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영어권 국가 중 노르웨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음악가 그리그의 출생지이며, 출지만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 나라이기에 한 번쯤 직접 가서 이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민족·민속음악에 관심이 있던 나는 교환학생지가 노르웨이로 결정됨에 따라 ‘그리그의 음악은 노르웨이적인가?’라는 학사 졸업논문 가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는 수도 오슬로에 위치해 있으며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에 가장 먼저 세워진 종합대학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한 명문학교이며, 매 년 다양한 국적의 교환학생들이 방문하기에, 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첫 학기에 ‘Current Musicology’, 노르웨이어 초급(60시간), 몽크의 작품세계를 수강했다. 그 중 ‘Current Musicology’는 라틴아메리카 음악을 다룬 강의였다. 매 수업마다 2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갈 정도로 알차고 새로웠으며,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하셔서 수업시간을 항상 초과할 정도였다. 이 강의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라틴음악을 배울 수 있었고 Ethnomusicology(민족/종족음악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 학기에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노르웨이 음악 강의를 수강했다. 이 강의는 일 년에 딱 한번 봄 학기에만 열리는 강의이며, 개인적으로 학부 졸업 논문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의 내용이 담긴 강의였기에 나를 노르웨이에 두 학기동안 머물게 만들었던 과목이었다. 그 밖에 교양강의로 노르웨이 삶과 사회, 그리고 노르웨이 미디어 수업을 수강했는데 노르웨이의 전반적인 문화, 정치, 사회, 복지, 예술, 종교, 교육 등 노르웨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나는 노르웨이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영어 환경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 궁금한 것



은 바로 교수님께 질문했으며, 또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시험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했다. 강의가 끝나면 녹음기로 복습하고, 수업 참고자료도 찾아보면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

매주 금요일에는 ‘커피아워’(coffee hour)라는 국제 교환학생들과의 친목 동호회가 열리는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문화와 전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 또한 영어실력이 날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특별히 음악학 공부와 논문 작업을 병행하면서 노르웨이 음악 전공 교수님과 친해져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논문주제와 관련된 교수님과의 인터뷰영상도 찍고, 나중에는 교수님께 한국의 음악과 문화도 소개해드렸다.

교환학생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의 생활이 너무나 꿈만 같게 느껴진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르웨이에서 일 년을 보낸 것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운의 시간이었다.

EXCHANGE STUDENT PROGRAM ESSAY: Min-gyeong Son, University of Oslo, Norway.

On September 13th, I was able to interview Ms. Min-gyeong Son, the class of '10 of the College of Music, who was preparing for her last semester in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and Theory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In her senior year, she decided to study abroad at University of Oslo, Norway for a year and in order to prepare her senior thesis more in depth.

With great ambitions, she said her dream is to spread the identity of Korean music and learn the Norwegian music at the same time. With great expectation, I look forward to her future activities and efforts in fulfilling her dream.



함께 졸업하는 음대친구들, 정말 수고했고 우리 끝까지 음악해서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 만나자.
그리고 당분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성악과 안정민(11)

졸업연주를 하고나니 정말 졸업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윤현주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성악과 임다빈(11)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만 새내기 같은데 졸업연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지도해주신 이경선 교수님과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 11학년 동기들, 선후배님 그리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감동을 주는 행복한 음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악과 바이올린전공 김민지(11)

Adieu, SNU

졸업연주 후기.



졸업논문을 통해 단순히 음악에 관한 글쓰기 공부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닦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신 민은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음악에 대하여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창작하며 정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작곡과 이론전공 성찬경(09)

클래식 공부를 늦게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음악적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과정과 그 마지막인



졸업연주를 통해 조금이나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작곡과 교수님들,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작곡과 작곡전공 김진환(08)

새내기가 된 지 몇 개월 뒤에 당시 4학년이었던 08학번 선배들의 졸업연주를 보게 되었다. 선배들의 연주를 보며 '나도 저런 좋은 연주회를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졸업연주를 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빠르다. 이상하다 정말...

기악과 피아노전공 박경선(11)



해금양상블과 첼로와 국악기의 합주. 서로 다른 느낌의 두 곡을 연주자들의 재량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짜릿했다.

국악과 작곡전공 배가람(11)



학부생으로서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니 벽차면서도 울컥했다..! 졸업하기 너무 싫다. 흑! 다시 새내기 때로 돌아갔으면...

국악과 해금전공 왕정은(11)

4인 4색의 그들.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Rendezvous String Quartet)

서울대학교 기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은 이름 뜻대로 '화합' '만남'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창단되었다. 창단 이래 예술의 전당 힐링&토크 콘서트 연주를 비롯해 활발한 실내악 연주를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금호 영 체임버 콘서트에 합격하여 11월에 성공적인 연주를 가졌고, TNB 콩쿠르에 실내악부분 1위를 수상하였다.



FOUR LADIES, FOUR COLORS, 'RENDEZVOUS STRING QUARTET'

Rendezvous String Quartet, which means 'Harmony', 'Concord', and 'Meeting', consists of currently enrolling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of the SNU College of Music, started out in 2013 to perform music of 'rendezvous'.

Since its founding, Rendezvous string quartet has been actively performing on various stages, including 'Healing and talk Concert' hosted by the Seoul Arts Center. In 2014, it was selected as a participant of Kumho Young Chamber Concert and successfully finished the performance in November. It also has a record of winning the Chamber Music category of the TNB Competition.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민 : 안녕하세요. 저희는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입니다. 저희 팀은 1st 바이올린 장윤화, 2nd 바이올린 유정민, 비올라 홍은주, 첼로 허예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3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콰르텟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민 : 사실 기악과에서는 실내악 과목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성과도 내보고자 이렇게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국한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디션 준비도 하고 동고동락하고 있죠.

Q. 연습은 보통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요즘은 어떤 연습을 하는 중이세요?

정민 : 연주가 있기 2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만나서 연습해요. 학교 끝나고 6시부터 연습실 문 닫는 1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죠. 주말에도 만나 학교 연습실과 현경이 연습실을 다니며 연습하기도 했고요. 11월에 연주를 끝내서 앞으로 정해진 연주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열정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Q. 평소 연습 분위기는 어떤가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현경 : 화목하죠.(웃음)

윤화 : 그렇죠. 재밌고 화목하죠.(웃음) 정민이는 항상 악기에 문제가 생겨요.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거나 뿔가가 터지거나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웃음)

Q. 연습하면서 갈등은 없으셨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신가요?

정민 : 여자 4명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는 그동안 이렇다 할 큰 갈등은 없었지만 대부분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가끔 약간의 소리를 지르면 마무리가 지어지더라고요.(웃음) 그리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라 이야기하면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현경 : 아무래도 금호연주였던 것 같아요.

정민 :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나와 마신 밤공기며 이런 것들을 입시생 때만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느끼니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웃음)

Q.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이 추구하는 음악은?

현경 : 각 시대의 작곡가가 추구했던 음악을 저희도 동일하게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민 : 이전에 저희가 앨범을 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대중적인 곡들도 많이 수록했었어요. 물론 주를 이루는 것은 클래식이지만,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대중적인 음악도 함께 추구에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각자는 어떠한 연주가 되고 싶은가?

윤화 : 저는 정통클래식보다 전자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클래식 크로스오버 현악 4중주단 'Bond'와 같은 콰르텟을 만들어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경 : 저는 개인 연주와 실내악 두 가지 방면에서 모두 잘하는 연주가 되고 싶어요.

정민 :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솔리스트보다는 다른 연주자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나에게 '랑데뷰 스트링 콰르텟'이란?

윤화 : 랑데뷰는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 곳이에요. 처음엔 음악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저 혼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같이 연습하고 호흡을 맞추다 보니 다른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정민 : 일단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실내악에 대한 로망을 이루게 해 준 곳이라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윤화랑 마찬가지로 콰르텟을 하면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귀로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귀가 점점 예민해지는 것도 느끼고 다른 악기들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좋은 친구이자 음악의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서 그 점도 너무 좋고요.

현경 : 제게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제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있다가 보니 밝은 성격으로 변한 것 같고, 또 연주스타일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참 고마운 존재예요.

비온 뒤 움트다.

비움(BE:UM)

비움(BE:UM)

비움은 '비온 뒤 움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움은 2011년 처음 창단되어 전통음악을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 및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대상, '크라운해태 주최 국악 실내악페스티벌 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팀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별론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PROUTING AFTER THE RAIN, 'BE:UM'

BE:UM literally means 'Sprouting after the rain'. BE:UM was first established in 2011 and has been exploring the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new contemporary Korean music. BE:UM has won the grand prize in the 4th Korea University Gugak Festival, the silver medal in the 'Gugak Chamber Ensemble Festival' sponsored by Crown and Haitai. And in October 2014, BE:UM was selected as one of the performance participants of 'Myriade Wave Concert', finished the stage performance successfully and won the 'special prize'.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형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움뒤 새싹이 움트다'는 뜻을 가진 연주팀 비움입니다. 저는 비움의 리더이자 대금을 맡고 있는 이진형입니다. 저희 팀은 가야금 임도균, 거문고 류관우, 해금 손혜진, 피리 김혜진, 아쟁 김용성, 타악 조수민, 타악 양종윤, 작곡 송지섭 이렇게 9명입니다. 2011년 겨울, 저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민속악 민요 등을 자발적으로 찾는 스튜디오 시작하였으며, 함께 연주 연습을 하면서 연주 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Q. 언제부터 '비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습하셨나요?

진형 : 비움은 2011년 처음 창단되어 전통음악을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 및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대상, '크라운해태 주최 국악 실내악페스티벌 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팀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별론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곡 선정과 연습에 있어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진형 : 곡 선정과 연습에 있어서 항상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팀의 작곡을 맡고 있는 송지섭 누나가 작곡한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주자들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기도 해요. 연주자들이 작곡할 때 어려운 부분은 지섭 누나가 많이 도와주고요. 최대한 정해진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노력해요.

Q. 연습분위기는 어떤가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진형 : '비움'의 연습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음악을 맞춰나가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희 팀은 그러한 규율들이 음악에 대한 창의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러한 점들을 팀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팀에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구요.

Q. 연습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진형 : 얼마 전 끝낸 '천차만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니 정말 할 것들이 많았어요. 의상, 조명, 무대장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까지 전부 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두 달 정도 매일같이 연습하느라 체력적인 한계도 조금 느꼈었구요. 그래도 서로 북돋아주며 즐겁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진형 : 대학국악제에 참가해 상 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규모가 큰 대회여서 그런지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고, 저희 팀은 상금을 사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도록 의견을 맞추었어요. 그 뒤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객원비, 의상비, 무대장치비를 비롯한 연주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어요.

Q. 비움이 추구하는 음악은?

진형 : 솔직히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잘 모르겠어요. 방향성은 음악을 계속 하다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팀원 모두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전통에 충분히 충실한 음악을 하는 것이에요.

지섭 : 이제는 콩쿠르보다는 연주를 하면서 저희만의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때그때 생각했던 것을 구현해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나에게 '비움'이란?

- 류관우 :** 음악이 흐르는 곳이다.
- 송지섭 :** 나의 밋밋한 생활에 활력소이자 자극제이다.
- 양종윤 :** 음악을 통해 귀를 정화하는 곳이다.
- 김혜진 :** 실험실이다!
- 임도균 :** 나에게 비움이란 나의 음악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 김영성 :** 나에게 비움은 채움이다.
- 손혜진 :** 비움은 함께하는 음악이 즐겁다는 걸 일깨워준 또 다른 가족이다.

오랜만에 내 감성에 물을 준다.

80세의 피아니스트_ 정낙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문 정기연주회에서 연주

80-year-old Pianist Nak Young Jung performed at Annual Concert of SNU College of Music Alumni Association in Southern California.

An 80-year-old Pianist Nak Young Jung, despite her age, performed a piano duet with Cho Hyun Park, her lower classman. Music with such careful moderation and precision, Bach. Where can one ever hear such music of refinement by a veteran from somewhere else? This performance of two aged upper classman and lower classman modulating and uniting in one was something that is not easily seen in other places.



지난 9월 6일, LA에 위치한 지퍼홀(Zipper Concert Hall)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ABC 상담대화 교육원 후원을 위해 열린 이 연주회에는 80세의 피아니스트 정낙영 씨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후배인 피아니스트 박초현 씨와 함께 피아노 듀오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BWV 988》을 연주했다. 피아니스트 정낙영 씨는 1956년 본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피아노 유학생으로 뮌헨 국립 음악대학에서 4년간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남가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울대인의 '온라인 지성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언론 'Acropolis times'에서는 정낙영 씨와 박초현 씨의 연주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정낙영 피아니스트는 80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막내딸 같은 젊고 예쁜 후배 박초현과 함께 피아노 듀오를 해주었다. 흐트러짐

없이 절제되고 정확한 음악. 바하. 어디서 이런 노장의 피아노연주를 감상할 기회가 있을까? 함께 선후배가 영혼을 맞추어 관객에게 음악을 선사하는 이런 연주회는 그야말로 본 적이 없다. 선배는 후배들의 권유에 기꺼이 응해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모시고 함께 음악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80세의 피아니스트 정낙영 씨의 독주, 실내악, 협연 등 다방면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본다.

주부에서 다시 피아니스트로 카네기홀에 서기까지.

바르톡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에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_ 박초현

Cho Hyun Park, the winner of the 33rd Bartok-Kabalevsky-Prokofiev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performed at Carnegie Hall.

Pianist Cho Hyun Park, an alumna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ho received her Master's and Doctor's degree i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ad won the grand prize in the 33rd Bartok-Kabalevsky-Prokofiev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Italy in last July.



이탈리아 바르톡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에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박초현, 미국 카네기홀 연주

본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피아니스트 박초현 씨가 39세 나이에 지난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 33회 바르톡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에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Bartok-Kabalevsky-Prokofiev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 샌디에고 지역신문 유틸리티샌디에고(U-T San Diego)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 연습, 연습' 뿐이다. 카네기 홀은 박초현에게도 인내와 끈기를 요구했다"며 박초현 씨의 우승소식을 알렸다.

2003년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4년간 피아노를 멀리했던 그는 반주와 개인레슨으

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으며, 2013년 5월 샌디에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을 협연하는 쾌거를 이룬다. 그 후에도 하루 10시간의 연습량을 인내로 이겨낸 결과, 바르톡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에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2015년 미국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악, 한국을 알리기 위한 미국 땅에서의 도전.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즉흥연주과_ 김도연



안녕하세요 선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국악과 가야금 전공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Contemporary Improvisation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와서요. 지금 첫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모니 듣는 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모니 위에 멜로디를 즉흥으로 연주하는 연습하고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숙제를 하고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연습하다보면 벌써 학교 문 닫는 시간이예요.

어떻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매우 긴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캐나다에 2달 정도 어학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 때 친구들이 항상 '일본에서 왔니?, 중국에서 왔니? 그럼 어디서 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지만 제 중학교 시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각 반에 꼭 한 명 이상씩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 때부터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했고 결국 지금 여기 미국까지 오게 되었네요.

국악과가 아닌 이색적인과로 들어가셨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정말 180도 다른 음악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작곡가에 의해 쓰인 음악을 연주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제가 만들고 편곡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연주하고 있어요. 이 번 학기는 '소음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Evil'이 주제이었어요. 가야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작사도 하고 영화음악도 만들고 특히 앙상을 연주가 정말 재미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틀이 없고 자유로운 음악이

라고 할까요? 제가 상상하는 음악을 실제로 실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 한 아이디어였지만 그 재미가 더해져서 대규모의 음악도 만들어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은 화성학인데요, 서양화성, 재즈화성 등 지금 저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멜로디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있어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느낌이에요.

학교생활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Survivor Breakfast Ensemble에서 어떤 친구가 'The Cream Evil' 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The Cream Evil'을 몇 번이고 외쳐야 되었어요. 주문을 외우는 형식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연기에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주문을 외우실 때 저희는 미스터리한 음들을 연주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음악이었어요. 악마가 나올 것 같은.. 마지막 주문을 외우실 때 다 같이 'the cream Evil' 이라고 속삭이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기 목소리로 광고 음악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들도 엄청 웃고 그런 웃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흐뭇하게 연주한 기억이 가장 남아요.

유학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먹는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기숙사 음식이 너무 짜고 달아서요. 밖에서 사먹는 건 비싸고 기숙사에 살다보니깐 만들어 먹는 것도 힘들고. 지금은 적응되어서 잘 먹지만 처음에는 설사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유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Youtube에서 'Tango en skai' 라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모든 영상을 다 본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란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영상을 많이 보곤 했어요. 저의 한 가지 소망이 'Tango en Skai' 음악을 실제로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 음악을 연주해줬어요. 연주한 다음에 좀 지나

서 알게 되었지만 저의 소망을 이뤄준 친구가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인 친구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친구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학기 초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이에요.

끝으로 연주자를 꿈꾸고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누가 먼저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찾아보고, 알아본 다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즉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누군가는 꼭 잡아주니까 겁내지 말고 먼저 찾으세요.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도 NEC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Master's student in New England Conservatory, Contemporary Improvisation, Do-yeon Kim.

"Before, I used to perform pieces that were composed by other composers but now I make my own, or arrange the pieces in my own style. Sometimes I and my friends get together and work. The themes I learned in the last semester were 'playing with noise' and 'Evil'. I'd got to try so many things with gayageum. I even wrote a lyric for my music, composed film music and so on. The most interesting activity that attracted me was the ensemble. I can't quite put it in exact words, but it is something like free-style music!"

로시니 테너 연구.

박준석(박사 · 06)



Research on the use of Tenor in Rossini's music by Jun-seok Park.

This paper is the research on the role of tenors and their musical characteristics in operas of G. Rossini(1792-1868), a leading composer especially famous for his bel canto opera.

For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searcher first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 and development of opera as a musical genre and the changing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enor's role in the opera, and inquires the unique aspects of Rossini's tenor based on such.

본 논문은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 작곡가 로시니(Gioachino Rossini, 1792-1868)의 오페라에 나타나는 배역이자 음악적 개성이 뚜렷한 로시니 테너를 연구한 것이다.

로시니는 벨칸토 이탈리아 오페라 양식의 확립에 기여한 작곡가이다. 그는 오페라 부파(buffa)와 세리아(seria)의 요소들을 융합시켜 극 속에서 다양하고 호소력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냈으며, 음악에 활기찬 리듬을 도입하여 떠들썩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하는 희극적 묘사의 귀재였다. 1970년대 말엽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大家)들의 출현으로 로시니 오페라는 부흥기를 맞이하였고, 1980년에는 로시니가 출생한 이탈리아 페사로(Pesaro)지방에서 매년 여름마다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도 로시니 오페라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유럽 최고의 연출가들에 의해 꾸준히 상연되고 있다.

비록 국내에서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꾸준히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로시니 오페라는 타 오페라들과 달리 현란하고 화려함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1816) 중 테너 알마비바(Almaviva) 백작 역할을 약 10회 이상 공연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갖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테너 파트라고 생각하여, 로시니 테너에 주목하였고 이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로시니 테너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이론

적인 배경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한 오페라와 그 안에서의 테너의 특징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로시니 테너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중심 대상은 로시니의 대표적인 오페라로 평가되는 여섯 작품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세빌리아의 이발사》, 《체네렌톨라》, 《탄크레디》, 《세미라미데》, 《윌리엄 텔》이었으며,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각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테너의 극적·음악적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로시니 테너는 콜로라투라 선율의 사용, 앙상블에서의 중심적 역할, 서정적 사랑의 주제, 파를란도 기법의 사용, 고음역대의 가성 사용을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로시니 테너는 다른 작곡가들의 테너들보다도 평균 2도에서 3도 높은 음역대에서 노래하며 이러한 고음역대에서 콜로라투라라는 화려한 선율로 테너의 다양한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특이하게도 현대에서는 기피되고 있는 가성이라는 방법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극적인 전개에 있어서 로시니 오페라의 테너는 주로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남성으로 지고지순하고 단순하며, 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로시니 전후 시대의 다른 작곡가인 모차르트, 도니제티, 베르디, 푸치니의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본 논문에서는 로시니 테너들을 거론하여 실제적인 접근을 하였고, 로시니 테너의 고유성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미비한 로시니 테너의 연구가 본 논문을 통해 그 특수성과 가치가 재조명되며 연주자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4학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Brovo! Prize Winner

성악과		
성악	이혜진(12)	조선국제음악콩쿠르 전체1위 T&B 국제아티스트 콩쿠르 1위 한국성악콩쿠르 2위
	박수진(11)	슈베르트가곡콩쿠르 장려상
	이수홍(12)	독일가곡콩쿠르 2위 슈베르트가곡콩쿠르 2위 엄정행성악콩쿠르 특별상
	김중화(11)	15 th Osak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위
	정재원(09)	글로리아 오페라단 콩쿨 2위 엄정행성악콩쿠르 대상

국악과		
거문고	류관우(11)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부문 금상
가야금	정나영(13)	제38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장려상
	임도경(13)	제12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해금	주정현(13)	제24회 KBS국악대경연 장원
타악	윤혁진(13)	제6회 원주 전국풍물경연대회 종합대상 제22회 임방울국악제전국대회 농악 일반부 대상
실내악	비움(BE:UM)	2014 전통예술 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 별론 특별상
	소리울	2014 전통예술 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 별론 특별상

2014학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Brovo! Prize Winner

기악과		
피아노	박연민(석)	The 41 th Palma d'Oro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st Prize
	고연경(11)	XIX Semana Internacional Piano Festival 1st Prize (ACIM's 2014 Award) Obidos, Portugal
	박영호(12)	성정음악콩쿨 3위 연지예술가곡콩쿨 최고반주자상 슈베르트협회가곡콩쿨 최고반주자상
	김민준(12)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de Lyon 2위
	박우길(12)	'Dr. Luis sigal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위
	최영선(13)	성정 콩쿠르 2위 코리아헤럴드 콩쿠르 1위 영창 음악 콩쿠르 전체대상
	방경난(14)	금호영아티스트오디션
호른	고영중(14)	2014년 제54회 동아음악콩쿠르 호른부문 1위 없는 2위
	조리아(13)	2014년 제54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플루트	손예진(12)	The 3 rd Nicolet International Flute Competition Special Prize (Best Interpretation of Chines piece)
	윤슬기(13)	유중아트센터 라이징 스타 오디션 합격
바순	전지수(13)	Osaka Internacional Music Competition 3위
타악	김지연(10)	제9회 제주국제관악 및 타악기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바이올린	이지연(14)	부암콩쿠르 바이올린부분 2위
	임누리(11)	음연콩쿨 1위
	박강현(10)	2014 동아음악콩쿠르 5위
	김계희(13)	윤이상 콩쿠르 (Seong-Yawng Park Special Prize Winner)
비올라	송가은(14)	2014 동아음악콩쿠르 2위
첼로	윤 설(14)	2014 동아음악콩쿠르 3위
더블베이스	강성준(13)	2014 동아음악콩쿠르 2위
	이혜선(12)	2014 동아음악콩쿠르 3위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박미혜 교수

KBS홀에서 UN 참전용사 추모음악회 협연공연
Prof. Park, Mi-Hae performed as a soloist in the Korean War Memorial Concert held in the KBS Hall.

10월 23일 KBS홀에서 UN 참전용사 추모음악회 협연공연을 가졌다. 12월 12일 사회적 협동조합(이음) 창립공연에서 코리안 유스심포니와 협연을 가졌으며, 이날 아리아리랑, 에메이징그레이스, 넬라판타지아 등을 연주하였다.

서혜연 교수

'2014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Prof. Seo, Hye-Yeon won the grand prize in the '2014 Korea Social Contribution Prize'.

8월 5일부터 9일까지 평창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주최 '2014년 평창 스페셜 국제 뮤직 페스티벌' 기획운영위원 및 성악 멘토 지도교수로 참가하였다.
8월 7일에는 국립 오페라단 주최 '2014 국립 오페라단-오페라 여행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독창자로 공연했다. 8월 12일에는 남원시 주최 '소프라노 서혜연 교수 초청 한여름 밤의 소리 여행'을, 11월 28일에는 DMZ 국제 음악제 사무국 주최 '2014년 연천 DMZ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서 공연했다.
12월 5일에는 '2014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으며, 12월 22일에는 AdL(아.디.엘레) 주최 창단연주회에서 공연했다.

연광철 교수

제 9회 '대원 음악상' 대상 수상
Prof. Youn, Kwang Chul won the grand prize in the 9th Daewon Music Awards.

9월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창회 '겨울 나그네'를, 10월 2일에는 독일 본에서 독창회 '겨울 나그네'를, 10월 2일부터 11월 2일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탄호이저> 중 헤르만역을 공연하였고, 12월 7일부터 23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오페라 <피델리오> 중 로코역을 공연했다. 2015년 1월 2일에는 제 9회 '대원 음악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승현 교수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등재 기념, 문화 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공연에서 솔리스트로 공연
Prof. Attila Jun, performed as a soloist in the memorial concert of the inscription of Arirang on the UNESCO's list of intangible world heritage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10월 11일 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Teatro La Fenice에서 오페라 <돈 죠반니>의 베이스 'Commendatore'역을 맡아 공연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의 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등재 기념, 문화 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공연에 베이스 솔리스트 역을 맡아 공연하였다. 12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관악앙상블 연주회 베이스 솔리스트로 공연했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작곡 전공 Composition Major]

정태봉 교수

'2014 운지회 체임버 오케스트라 IX, 화음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창작현대음악: Joy on the Strings'에서 <현악 합주를 위한 "한강"> 작품 연주
Prof. Chung, Tai-Bong staged <"Hangang" for string ensemble> in the "2014 UNJI Chamber Orchestra Series IX : Joy on the Strings".

9월 30일, 예술의 전당 BK챔버홀에서 열린 '2014 운지회 체임버 오케스트라 IX, 화음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창작현대음악: Joy on the Strings'에서 <현악 합주를 위한 "한강">(2003)이 연주되었다.

이돈웅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간 연주기법을 구사하는 어쿠스틱 악기연주로봇과 콘텐츠 생성 기술 개발"을 새로운 3년 연구과제로 수탁
Prof. Donoung Lee, entrusted with a new 3-year research project of "Development of Acoustic instrument performing robots with human performance techniques and generation of contents"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9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보존회 제15회 정기연주회에서 작품 <산조회상>(散調回想)이 연주되었다. 10월 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Sound Tail>이 연주되었으며 같은 곡이 10월 24일 독일 Elisabeth Schneider Stiftung(Freiburg)에서 열린 Ensemble Aventure Konzert 'Korea meets Europe'에서 연주되었다.
12월 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한국작곡가협회 대한민국실내악제전에서 <Sori for Violoncello and Live-Electronic>이 연주되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간 연주기법을 구사하는 어쿠스틱 악기 연주로봇과 콘텐츠 생성 기술 개발"을 새로운 3년 연구과제로 수탁 받았다.

이신우 교수

뉴욕 카네기홀 Weill Recital Hall에서 <Chorale Fantasies> 작품 전곡 연주
Prof. Shinuh Lee, staged a full-length performance of <Chorale Fantasies> in the Weill Recital Hall at Carnegie Hall, New York City.

<Chorale Fantasies No. 1, 3>이 11월 2일 Musikverein, 11월 3일 뮌헨국립음대 Großer Konzertsaal에서 유럽 초연되었다. 11월 26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Expression for violoncello>가 연주되었다.
또한 <Lament, O the daughter of Zion for flute and piano>의 개작이 지난 12월 3일 페리지홀에서 열린 윤희리 교수 독주회에서 초연되었다. 이를 뒤 이경선, 윤희리 교수와 함께 하우스콘서트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12월 1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채리티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Quartet for piano and strings (Paul, a servant of Christ) 2악장이 세계 초연되었다. 12월 18일 뉴욕 카네기홀 Weill Recital Hall에서 <Chorale Fantasies> 전곡이 연주되었다. 또한 작품 <Chorale Fantasy for piano Nos. 1-3, Psalm Sonata for violin and piano>이 Dux레이블의 CD로 유럽에 발매되었다.

전상직 교수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독일 뮌헨 헤라클레스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홀에서 작품 <Credo for Orchestra> 세계 초연

Prof. Sangjick Jun, premiered his <Credo for Orchestra> in the Smetana Hall of Municipal House Prague, Czech, the Herkulessaal of the Münchner Residenz, Germany, and the Wiener Musikverein, Austria.

작품 <Credo for Orchestra>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유럽투어의 일환으로 8월 31일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9월 2일 독일 뮌헨 헤라클레스홀, 9월 4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홀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제 33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정 교수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 초연
Prof. Uzong Choe, premiered the opera <Arriving on the Waters like the Moon...> in the Sejong M Theater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이 초연되었다. 11월 26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바우하우스와 현대음악에서 <Looper for piano, violin and cello>가 연주되었다.

11월 28일에는 Arko 창작아카데미에서, 12월 11일에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경영인 역사포럼에서 강의를 맡았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독일 Freiburg의 Centre Culturel Francais Freiburg에서 <“EMPTY PHASES” for cello, piano and percussion> 세계 초연
Prof. Roland Breitenfeld, premiered <“EMPTY PHASES” for cello, piano and percussion> in the Centre Culturel Français Freiburg, in Freiburg, Germany.

9월 30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피리의 열정 1070'에서 Anthony di Ritis의 작품 <Five Movements for Piri and 4 Channel Audio>의 Sound designer로 참여하였다. 10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at SNU'에서 <“EREIGNISSE V” for flute (also piccolo), oboe, clarinet, bassoon, percussion, piano, violin, cello and live-electronics>가 세계 초연되었다.

같은 곡이 10월 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그리고 10월 24일에는 독일 Elisabeth Schneider Stiftung(Freiburg)에서 열린 Ensemble Aventure Konzert 'Korea meets Europe'에서 연주되었다.

11월 20일에는 독일 Freiburg의 Centre Culturel Français Freiburg에서 <“EMPTY PHASES” for cello, piano and percussion>가 세계 초연 되었다.

11월 29일 서울대학교 MoA에서 열린 'Scene for piri, traditionally Korean instruments and electronic sounds'에서 작품 <8 Elements Sound Concerts serie IV: "Haut / Skin - Erde / Earth">가 세계 초연되었다. 12월 5일에는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연주된 강석희의 작품 <RÉVÉLATION>의 Live-electronics & sound design로 참여하였다. 12월 12일에는 독일 Musikbibliothek(Freiburg)에서 <“TEMPEST” for clarinet (also bass-clarinet), piano and percussion>가 연주되었다.

김규동 교수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at SNU'에서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 Drei Klavierstücke> 작품 연주
Prof. Gyoo-Dong Kim, staged his <Drei Klavierstücke> in the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at SNU'.

10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STUDIO2021 : Ensemble Aventure at SNU'에서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 Drei Klavierstücke>이 연주되었다. 11월 16일에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위 솔로이스츠 제 10회 정기연주회에서 <피아노와 현악합주를 위한 "한강">이 연주되었다. 12월 19일에는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Fünf Klavierstücke>이 일신홀에서 연주되었다.

[지휘 전공 Conductor Major]

김덕기 교수

KBS홀에서 열린 러시아 대사관 주최 한러수교 기념음악회 지휘
Prof. Docki Kim, conducted the Russian Embassy diplomatic memorial concert held at the KBS Hall.

9월 19일 KBS홀에서 열린 러시아 대사관 주최 한러수교 기념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9월 27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블라디보스톡 오페라하우스 개관기념 프리마돈나양상블 초청연주'의 지휘를 맡았다.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싱가포르 Sands Hall에서 열린 국립오페라단 해외공연 'Soul Mate'의 지휘를 맡았다. 12월 11일에는 예술의전당 BK챔버홀에서 열린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정기연주회의 지휘를 맡았다.

임헌정 교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유럽투어 지휘

Prof. Hun-Joung Lim, conducted at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s 2014 Europe Concert Tour.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세 번의 연주회에 걸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유럽투어에서, 9월 30일에는 코리안심포니 제 193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또한 10월 19일에는 2014 세종문화회관 시민예술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10월 31일에는 코리안심포니 기획시리즈 'Talking with the Orchestra I' 에서 지휘를 맡았다. 11월 21일에는 코리안심포니 브루크너 사이클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12월 4일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제95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이론 전공 Music Theory Major]

이석원 교수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위원장으로서 전체 학술 프로그램 총괄

Prof. Yi, Suk Won administered and organized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as a program organizer of the conference committee.

8월 4일부터 8일까지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의 전체 학술 프로그램 위원장직을 맡아 논문심사와 우수논문

선별작업을 총괄했다. 또한 국제음악학회(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의 제 3차 동아시아 학술대회(2015년 12월 개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5년 1월 19일에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유아교육 최고위 과정에서 '초기 음악교육이 유아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민은기 교수

공저 <서양음악사 2>(음악세계) 출간
Prof. Min, Eungi published <Western Music History 2>(Music World) as a co-author.

공저 <서양음악사 2>(음악세계)를 출간하였다.

오희숙 교수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The Influx of Western Music in early 20th century Korea—Focusing on Composer's Musical Background, the Education and the Identity"

Prof. Oh, Hee Sook presented her research "The Influx of Western Music in early 20th century Korea—Focusing on Composer's Musical Background, the Education and the Identity" at a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Croatia.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The Influx of Western Music in early 20th century Korea—Focusing on Composer's Musical Background, the Education and the Identity")를 하였고, 11월에는 일본 동경대에서 열린 동아시아 학생 교환 세미나에서 초청 강연("The Listening style of 20th century and musical Geniuses")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헤르만 다누저 교수의 강연 "Von Komposition zu Sound Design, von Sound Design zu Komposition"을 통역하였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피아노 전공 Piano Major]

최희연 교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인 'SPO Ars Nova'에서 강석희의 <피아노 협주곡>을 서울시향, 지휘자 크와메 라이언과 협연

Prof. Hie-Yeon Choi, performed Sukki Kang's <Piano Concerto> with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conductor Kwame Ryan in the SPO's Contemporary Music Series 'SPO Ars Nova'.

9월 15일 페리지홀 기획 연주회에 초청되어 모두 베토벤 소나타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가졌다. 또한 10월 1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인 'SPO Ars Nova'에서 강석희의 <피아노 협주곡>(1996)을 서울시향, 지휘자 크와메 라이언과 함께 협연하였다.

주희성 교수

예술의 전당 기획 '2014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임헌정 교수 지휘 아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스트의 <토텐탄츠> 연주

Prof. Hee-Sung Joo performed F. Liszt's <Totentanz> as a soloist with the SNU Symphony Orchestra under the baton of Prof. Hun-Joung Lim in the '2014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organized by the Seoul Arts Center.

10월 1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브람스 기획사 초청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으며, 11월 7일에는 예술의 전당 기획 '2014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임헌정 교수 지휘 아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스트의 <토텐탄츠>를 연주하였다. 11월 20일 일신홀에서는 링컨센터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수연 씨와 세종 솔로이스츠 기획 '루브르 리사이틀 앙콜 시리즈 인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음악회를 가져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으며, 1월 31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 국제음악제 시리즈 음악회 중 하나인 거장의 실내악에서 고이치로 하라다 등의 연주자들과 함께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가졌다. 그 외에는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 초청되어 공개 피아노 마스터클래스를 가지기도 하였다.

Aviram Reichert 교수

코피노 아동의 교육을 위한 모금 음악회에서 KBS 교향악단과 KBS 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협연

Prof. Aviram Reichert, performed Rachmaninoff's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 18> as a soloist with KBS Symphony Orchestra in the Fundraiser Concert for the Education of Kopino Children.

7월 28부터 8월 7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열린 Tel hai International master classes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레슨, 연주를 했고 9월 18일, 10월 29일에는 인천, 부산에서 House concert를 9월 20일, 10월 29일, 11월 26일에는 첼리스트 송영훈 씨와 대명비발디파크와 부산, 죽전에서 조인트 리사이틀을 가졌다.

10월 15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고, 10월 31부터 11월 4일까지는 중국에서 렉처 리사이틀 및 레슨을 하

며 세계적인 연주자 및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1월 30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첼리스트 송영훈 씨와 조인트 리사이틀로 다시 한 번 멋진 호흡을 보여주었고, 12월 5일에는 코피노 아동의 교육을 위한 모금음악회에서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며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중화 교수

러시아의 명지휘자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협연
Prof. Jong-Hwa Park, performed Rachmaninoff's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as a soloist with the Moscow Radio Symphony Orchestra under the baton of Russia's renowned conductor Vladimir Fedoseyev.

9월 26일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 오타카 타다아키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마스터즈 시리즈에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제2번>을 성공적으로 연주하여 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27일에는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하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쇼팽 <환상 즉흥곡>과 <발라드>, 리스트 <에스테장의 분수> 등을 연주하였다. 10월 1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이끄는 울산시향의 177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에 협연자로 나서 <피아노협주곡 제 1번 다장조>를 연주하였고, 23일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제 73회 정기연주회의 협연자로 나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장조>를 연주하였다. 11월 15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 제주대학교에서 트리오 콘서트를 개최하여 라흐마니노프와 드보르작의 트리오 작품을 연주하였으며, 19일에는 러시아의 명지휘자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과 대구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3번>을 협연하였다. 또한 25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남 부여의 규암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요를 편곡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악 전공 String Major]

최은식 교수

제 11회 대관령 국제 음악제(GMMFS) 참여

Prof. Ensik Choi participated in the 11th Great Mountains Music Festival and School(GMMFS).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11회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참여하여 학생들 지도했으며, '저명 연주자 시리즈'로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9월 20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화 페스티벌인 'One Korea Cultural Festival'의 폐막 콘서트인 평화기원음악회에 M4one 챔버 앙상블 멤버로 참여하였다. 11월 16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서울대학교 현악과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실내악 연주회 'Spirit of SNU Strings IV'에 참여하여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 2번 사장조>를 성황리에 연주하였다.

이경선 교수

스튜디오 2021에서 SNU 비르투오지와 함께 작곡가 강석희의 <평창의 사계> 연주

Prof. Kyung Sun Lee, performed Sukki Kang's <Four Seasons of Pyeongchang> with the SNU Virtuosi in SNU Studio 2021.

예술의전당에서 9월 20일 열린 M4one챔버앙상블의 평화기원음악회에서 슈베르트 <현악4중주 12번, 작품 703번>을 바이올리니스트 안고운, 비올리스트 최은식, 첼리스트 이강호와 함께 연주하였고 롯데시니,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도 SNU 비르투오지와 연주하였다. 작곡가 강석희 선생님의 산수연(傘壽宴)을 축하하는 의미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10월 18일 열린 STUDIO2021 음악회에서 강석희의 <평창의 사계>를 SNU 비르투오지와 함께 성황리에 연주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수원 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브람스, 슈만, 그리그 라벨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가졌다. 제주대학교에서 11월 15일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박중화와 함께 헨델/할보센의 <파사칼리아>, 드보르작 <피아노3중주 Op. 90 "뚝키">를, 11월 27일에는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김영호와 함께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작품 49번>을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하였다.

백주영 교수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열린 '세종 국제음악제'에서 연주

Prof. Ju-Young Baek, performed in 'Sej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ld in Curtis Institute of Music.

8월 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에서 열린 '세종 국제음악제'의 교수진으로 참가하여 연주하였고, 10월 18일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던 '7인의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의 음악감독으로서 'The tension'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29일에는 '진주 이상군 국제음악제'의 개막 공연 협연자로 그레고리 노박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과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Op. 35>를 연주하였고, 31일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앙상블 오푸스와 함께 비발디의 <사계>와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11월 26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서울음대 현악과 교수진과 학생들의 무대로 꾸며진 Spirit of SNU Strings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 2번 사장조>를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관악 전공 Wind Major]

김영률 교수

중국 북경 호른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북경 중앙음악원에서 이틀간 마스터 클래스 지도

Prof. Young-Yul Kim participated in Beijing International Horn Festival and lectured and instructed students in the two-day masterclasses in the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in Beijing, China.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영국 London Imperial College 국제호른협회(IHS) 연례 심포지움 이사회의에 참석하였다. 10월 3일부터 5일에는 중국 북경 호른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북경 중앙음악원에서 이틀간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하였다. 10월 29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최경일 호른 독주회의 지휘를 맡아 R. Strauss의 <협주곡 2번>과 Gliere의 <호른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11월 29일에는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관악 앙상블 'The Winds'가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연천 국제 음악제에서 초청 연주를 하였다.

12월 9일에는 'The Widns'의 평촌 아트홀 아침음악회 초청연주를 지휘하였다. 12월 12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의 지휘를 하였다. 이 연주회는 성악가 전승현 교수와 협연하였으며 차이코프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을 연주하였다. 12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12월 16일에는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김영률 호른 독주회가 열렸다. 12월 21일에는 김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망신예초청음악회의 지휘를 맡아 김포아트홀에서 연주하였다.

최경환 교수

경기 필하모닉의 <행복한 세대 공감 콘서트>에서 국제 예술 분야를 개척한 1세대 시니어 음악가로 선정

Prof. Kyung-Hwan Choi, nominated as the Senior Musician of the 1st generation who pioneered the field of Art internationally in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s 'Happy Generation to Generation concert'.

8월 27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윈드 앙상블 정기 연주회 지휘를 맡아, Jolivet의 <트럼펫 콘체르토 2번>(협연: 성재창, 충남대학교 교수), Alfred Reed의 <심포니 3번> 등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9월 13일 예술의 전당 제5회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에서 서울대학교 윈드 앙상블을 지휘하였으며, 10월 17일 영산아트 홀에서 열린 한국 벨기에 타악기 국제교류 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아 호평을 받았다. 또한 11월 2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 필하모닉의 '행복한 세대 공감 콘서트'에서는 국제 예술 분야를 개척한 1세대 시니어 음악가로 선정되어 황진학(경기필하모닉 수석 팀 파니스트), 윤재현과 함께 코믹과 익살스러운 팀파니 협주곡과 앤더슨의 <타 이프라이터>를 팀파니 연주자로서 협연하였다.

11월 14일에는 (사)김포음악협회 주관 김포아트홀 초청으로 서울대학교 심포닉 밴드를 지휘하여 김포지역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윤혜리 교수

부산에서 열린 'Asia Flute Festival'에서 연주

Prof. Hyeri Yoon performed in 'Asia Flute Festival' held in Busan.

8월 1일부터 10일까지 Music Alp 에서 주최한 Festival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를 하였고,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Asia Flute Festival에서 연주를 하였다. 10월 5일에는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Davide Formisano(플루트), Paolo Taballione(플루트), 허정화(피아노)와 한 무대에서 독주를 하였고 10월 21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SNU Wood Wind Ensemble 연주를 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11월 8일에는 Kanda Hiroaki(플루트)의 독주회에 함께 듀오 연주를 했고, 11월 19일에는 경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경주 챔버 오케스트라와 바하 <플루트 모음곡 2번>을 협연하였다.

11월 23일에는 영산아트홀에서 Stage One 이 주관하는 사랑의 플루트 콘서트를 앙상블로 연주하였고, 12월 3일에는 페리치홀에서 프레데릭 추(피아노)와 독주회를 가졌고, 12월 5일에는 율하우스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신우 교수의 2000년대 작품 하우스 콘서트에서 프레데릭 추(피아노)와 연주하였다. 12월 6일에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장승호(기타), 이강호(첼로) 그리고 김미연(타악기)과 함께 앙상블 연주를 하였고 12월 9일에는 평촌아트홀에서 김영률(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이 지휘하는 'The Winds'와 협연하였다.

12월 11일에는 금호아트홀에서 다수의 유명 음악가들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보헤미안의 겨울' 연주를 하였고 12월 12일에는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하피스트 김아림과 협연을 하였다.

국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임재원 교수

KBS국악관현악단 제223회 정기연주회 '어울림, 국악'에서 대금협주곡 초연

Prof. Lim, Jae-Won, premiered a daegeum concerto in the KBS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223th concert 'Consonance, Korean Music'.

10월 22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45회 안산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명인에 물들다'에서 대금협주곡을 협연하였다. 10월 23일에는 KBS홀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제223회 정기연주회 (어울림, 국악)에서 대금협주곡을 초연하였다. 11월 11일에는 제56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정기연주회에서 2부 관현악을 지휘하였다. 12월 16일에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14 송년음악회를 지휘하였다.

이지영 교수

한국문화재단주최 '지음(知音)-내일의명인' 연주회에서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를 연주

Prof. Yi, Ji-young performed <Gayageum Sanjo in the Style of Gong-Cheol Seo> in the concert 'Knowing Sound(知音) - Tomorrow's virtuosos' organized b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9월 20일 북촌낙락 초청공연 '명인동약'에서 가야금연주를 하였다.

10월 2일부터 4일에는 김해시주최 김해가야금페스티벌에서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 음악감독으로서 전체페스티벌을 총기획, 연출 및 연주를 하였다.

10월 31일에는 한국문화재단주최 '지음(知音)-내일의명인' 연주회에서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하였다.

정대석 교수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영산회상, 국악관현악을 만나다'에서 <영산회상>을 협연

Prof. Jeong, Dae-Seok, performed <Lingshan Huishang> as a soloist in KBS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Lingshan Huishang, meeting Korean Music Orchestra'.

11월 13일 KBS홀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인 '영산회상, 국악관현악을 만나다' 공연에서 서울악회의 동인으로 영산회상을 협연했다.

김우진 교수

성호기념관에서 전시되는 옥동금(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에 대한 소개문을 작성

Prof. Kim, Woojin wrote an introduction to the Okdonggeum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 283) exhibited in Seongho Memorial Museum.

9월 27일에는 황준연 교수 정년퇴임기념으로 출판된 「한국음악학의 지평」 봉정집에 '가곡의 고정성과 유동성'이란 제목으로 원고를 기고하였고, 10월 8일에는 강원일보사·한국민요학회 주관으로 정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중 "아리랑 문화의 발전적 대응 전략"에서 제1부 좌장으로 활동하였다. 10월 21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주관으로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 악기(승무북)분야의 중요무형문

화재 전승자 작품구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0월 24일부터 25일에는 한국국악학회·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공동주최로 영남대 영음홀·중앙도서관 정보이용교육실에서 개최된 '2014년 국악학 전국대회' "경상도 음악문화 재조명" 에서 제1부 좌장으로 활동하였다. 11월 14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주관으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에서 진행된 악기(특종·특경·금·슬·중·고)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구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2월 23일부터 성호기념관에서 전시되는 옥동금(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에 대한 소개문을 작성하였다.

김승근 교수

KOUS에서 열린 신악회 정기연주회에서 신작 〈생황과 국악기를 위한 음악〉 발표

Prof. Kim, Sngkn presented his new work 〈A music for Saenghwang and Korean Instruments〉 in Sinak society's regular concert held in the Korea Cultural House.

9월 18일 KOUS에서 열렸던 신악회 정기연주회에서 신작 〈생황과 국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였다. 11월 11일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렸던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정기연주회에서 〈국악관현악을 위한 음악〉을 임재원 교수의 지휘와 서울대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양경숙 교수

대만 남화대학에서 해금강의

Prof. Kyung Sook Yang gave a haegeum lesson in Nanhua University, Taiwan.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종묘에서 종묘제례악을 연주하였다.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대만 남화대학에서 해금강의를 했다.

편침성 교수

민속원에서 출간된 〈황준연 교수 정년 퇴임 기념: 한국 음악학의 지평〉에 “전통과 몰입: 한국의 음악 공교육에서의 국악기” 논문 발표

Prof. Finchum-Sung, presented the research “Tradition and Flow: Gugak Instrumentation in ROK Public School Music Education” in 〈Outlook on Korean Music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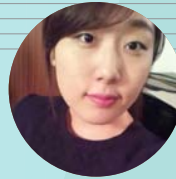
7월 11일 '덕수궁 풍류 공연 시리즈'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했다. 8월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으며, 10월 12일에는 '국악한마당 국악 축제'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했다.

11월 15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 연주와 함께 특강을 진행했고, 11월 21일에는 남산골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한예종 국악 나눔 프로젝트 '도란도란 이야기 콘서트'에서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했다.

논문으로는 민속원에서 출간된 〈황준연 교수 정년 퇴임 기념: 한국 음악학의 지평〉에 “전통과 몰입: 한국의 음악 공교육에서의 국악기 / Tradition and Flow: Gugak Instrumentation in ROK Public School Music Education.”를 발표했다. 11월 6일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인류음악학 국제학술회'에서 “The Sopor Mother's Singing Room and the Resurrection of Local Folk Song Traditions”를 발표했다.



(거울왕국 버전)
do you wanna build a 소식지~~? ♪
- 가영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 담긴 소식지!
- 태연



Adios!

- 석영



두 번째 소식지!!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호에서 만나요~
- 재윤



졸업 전,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의
편집방울!
- 민경

Spring. 2015.
Vol.15



음악대학 소식 제15호 | 2015년 3월 발행

발행인 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기획 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이지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 _ 하가영 기획홍보실 조교

김석영 작곡과 이론전공

손민경 작곡과 이론전공

이재윤 작곡과 이론전공

유태연 기악과 피아노전공

영문번역 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 _ 249 스튜디오

디자인 _ (주)다모아피앤디 02 · 466 · 7165

인쇄 _ (주)다모아피앤디 02 · 466 · 7165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5

Publisher _ Prof. Kim, Kwi-hyun,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 _ Prof. Yi, Ji-young,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 _ Prof. Oh, Hee-Sook,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 _ Ha, Ka-young, Office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Kim, Seok-young, BA course in Musicology

Son, Min-gyeong, BA course in Musicology

Lee, Jae-yoon, BA course in Musicology

Yoo, Tae-yeon, BA course in Piano

English Translation _ Kim, Go-woon Snover BA course in Musicology

Photo _ 249 Studio

Design _ Design in DAMOA p&d

Printing _ DAMOA p&d



서울대학교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